

2022 03 Vol. 381  
<http://cafe.daum.net/ocdskr>

# 가르멜



재속 면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 아빠, 아버지



가난한 몸은  
머리 들 곳도 없다  
외딴곳에 머물며 밤하늘 높이  
아버지께 향하는 마음과 시간들

제자들이 떠났고  
많은 사람들도 멀어졌다  
주어진 일자리에서 쫓기고 비난받고  
찢겨지고 벗기운 몸  
할 일 마지막은 십자가 지는 일이다

길 끝은 골고타 언덕  
십자가에 두 발 두 팔 모두 맡기고 누웠다  
피땀 어린 세상과 시간들이 묻히고 사라졌다  
그리고 열리는 하늘 무한하고 영원한 길  
아버지의 품이다.



## CONTENTS

- 02 갤러리 / 김영문(브루노) 신부  
아빠, 아버지
- 03 차례
- 04 수도회 역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62)
- 08 영성 / 신호준(마리오) 신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3)
- 13 웅달샘 /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인간이 되어오신 아드님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느님
- 14 사전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 사전(11)
- 18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 / 김석영(요셉) 수사  
벌써 새벽인걸요
- 20 선교 / 양상룡(도미니코) 신부  
신앙인들에게 코로나가 주는 위험
- 22 성소 / 성소 위원회  
가르멜로 74-55길
- 23 가르멜 인터뷰-박종인 라이문도 신부2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함께 걸어온  
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 28 공동체 이야기 /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앞산 자락 아래
- 31 하느님의 포도밭 일기 / 박지현(요셉피나)  
아주 평범한 1박 2일
- 34 회원의 글 / 박계용(도미니카)  
단란한 하루
- 36 회원의 글 / 반숙자(벨라멧다)  
차를 놓치고
- 38 회원의 글 / 김순상(베로니카)  
귀한 한마디 말
- 40 순례기 /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9)
- 45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36)  
2022년 5월 영적나눔
- 47 회원의 글 / 김선진(마리아)  
변화의 합일
- 49 비둘기
- 52 그림단상
- 표지 그림**  
**희미해지다**  
(신호준 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作)
-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희미해지고 퇴색되어버리는 기억의 특성을 형상화한 작품 / 겨우내 숨죽이며 웅크리고 있던 생명들이 하나둘씩 아지랑이처럼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모습
- \* 2021년 <기억-신호준 마리오 박보규 가브리엘 2인전> 전시작품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81호 (2022 3. 1)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나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관구 재속회 CARMELITE ORDER



\* 수도회 역사 \*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62)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수도원

6. 19-20세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맨발 가르멜의 확장

### 6) 콜롬비아에서의 창립 (계속)

여기서 우리는 콜롬비아 관구의 가르멜 회원들이 발전시킨 선교 사도직에 대해 기억해보기로 하자. 우선 3,5000입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우라바(Urabá) 지역에 대한 선교를 들 수 있다. 이곳은 콜롬비아의 북서부에 위치한 광활한 지역으로, 그들은 이 지역에서 1913년에 진출해서 1941년에 철수할 때까지 약 30년간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다. 이어서 1954년 교황청은 콜롬비아 남서부에 위치한 투마코(Tumaco) 지역에 대한 선교를 일임했다. 이곳 역시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다. 콜롬비아 관구는 이 두 지역의 선교 활동에 투신하는 가운데 5명의 주교를 배출했다. 2명은 우라바 지역을 위해 봉사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가르멜의 동정 마리아의 호세 호아킨 아르테아가(José Joaquín Arteaga de la Virgen del Carmen), 성녀 데레사의 세베리노(Severino de Santa Teresa). 다른 3명은 투마코 지역을 위해 봉사했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다: 성녀 데레사의 루이스 이리사르(Luís Irizar), 미겔 앙헬 레쿰베리(Lecumberri), 구스타보 히론(Gustavo Girón).

가르멜이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콜롬비아 출신의 성소자들은 가르멜의 문을 두드렸다. 적지 않은 성소자들이 입회해서 양성을 받아 회원의 수가 증가함으

로써 콜롬비아 남자 가르멜은 1964년 독립 관구로 승격된다. 이 관구의 정식 명칭은 성녀 소화 데레사 관구이다. 콜롬비아 관구 회원들은 주로 수도원에 부속된 본당 사목에 전념했다. 여기에 더해 가르멜 수녀들에 대한 강의, 영적 지도, 평신도들의 영성생활 증진, 재속회 사목, 영성서적 출판 사도직도 수행하고 있다.

### 7) 페루에서의 창립

페루의 트루히요(Trujillo) 가르멜 수녀들의 요청으로 카를로스 가르시아 이리고옌(Carlos García Irigoyen) 주교는 스페인의 나바라 관구로 하여금 트루히요에 남자 가르멜 수도원을 설립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1911년 나바라 관구에서는 그곳에 남자 가르멜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 후, 트루히요 가르멜 수사들은 치카마(Chicama) 계곡에 2개의 본당을 인수했다. 산티아고 데 카오(Santiago de Cao, 1915), 초코페(Chocope, 1917)가 그러하다. 이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페루에 지속적으로 가르멜 수도원을 창립했다: 리마-세르카도(Lima-Cercado, 1915), 피우라(Piura, 1927), 아레키파-산타마르타(Arequipa-Santa Marta, 1929), 아야쿠초(Ayacucho, 1933), 산페드로데록(San Pedro de Lloc, Trujillo, 1934), 카라스(Caraz, 1941), 리마-산호세(Lima-San José, 1943), 이카(Ica, 1951), 아레키파-람브라마니(Arequipa-Lambramani, 1964?), 리마-산펠리페(Lima-San Felipe, 1976),



리마-테올로가도(Lima-Teologado, 1984). 그밖에도 몇몇 수도원 창립들이 있었지만, 이는 잠시 이어졌다 사라지고 말았다. 1994년에는 리마 근처의 차클라요(Chaclayo)에 피정센터가 개원했으며 리마에는 가르멜 영성을 보급하는 영성센터도 설립되었다.

## 8) 볼리비아에서의 창립

앞서 아르헨티나에 수도원이 창립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주교로 성 알베르토의 호세 안토니오 신부가 오면서 가르멜이 시작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1784년에 그는 코르도바 교구에서 차르카스의 주도시로 옮겨간 적이 있다. 당시 그를 동반한 가르멜 회원들은 그가 임종하던 1804년까지 볼리비아에서 공동체를 이뤄 지냈다. 볼리비아에서 가르멜 출신의 두 번째 주교는 19세기에 있었다. 그는 산 페르민의 안토니아(Antonio de San Fermín) 주교로, 멕시코 관구 출신이다. 그는 볼리비아의 주교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산타크루스데라시에라(Santa Cruz de la Sierra)의 주교로 임명되어 활동한 바 있다. 그는 1738년 스페인 북부의 나바라에 있는 에스테야(Estella) 출신으로, 1801년부터 1804년까지 멕시코 관구의 관구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01년 예수의 에르네스토(Ernesto de Jesús) 신부는 칠레에서 여러 수도원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와중에 라파스(La Paz) 가르멜 수녀원의 원장인 아기예수의 나탈리아(Natalia del Niño Jesús) 수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나탈리아 수녀는 이 편지를 통해 볼리비아의 수도에 남자 가르멜 수도원을 창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칠레의 여러 수도원 창립에 전념하고 있던 에르네스토 신부는 볼리비아의 수도원 창립에 흔쾌

히 화답할 수 없었다. 이에 그는 아라곤 발렌시아 관구와 상의해서 지극한 성심의 루도비코(Ludovico de los SS. Corazones) 신부를 볼리비아 창립을 위해 파견하도록 했다.

1902년 루도비코 신부는 예수의 베르나르도(Bernardo de Jesús) 수사와 함께 볼리비아의 라파츠에 도착했다. 두 가르멜 회원은 그곳에 작은 공동체 하나를 설립해서 창립의 기초를 닦았다. 그 후 아라곤 발렌시아 관구에서 3명의 회원이 더 합류함으로써 본격적인 창립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승천의 레온치오(Leoncio de la Asunción) 신부, 성 요셉의 클라우디오(Claudio de San José) 신부. 이들은 무엇보다도 라파스 가르멜 수녀원의 수녀들을 위해 영적 지도와 고해 사제로 봉사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905년 12월 3일, 그들은 라파츠를 떠나 멕시코로 건너갔다. 여러 가지 여건상, 수도원 창립과 공동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0년 후, 교황 대사의 요청에 따라 가르멜 수녀들의 법적인 사목 방문을 위해 칠레에서 예수의 에르네스토 신부가 라파츠에 오게 된다. 이 기회에 라파츠 가르멜 수녀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조국에 남자 가르멜 수도원 창립을 요청했다. 그러나 에르네스토 신부는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지 못한 채 칠레로 돌아갔다. 그러나 계속해서 창립을 위해 양측은 협의를 하며 서신을 교환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부르고스 관구가 설립될 무렵, 총본부에서는 남미의 볼리비아 지역에 대한 선교를 부르고스 관구에 위임한 바 있다. 칠레에서 활동을 하던 에르네스토 신부는 이 새로운 관구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는 관구 참사회와의 협의하에 라파츠로 옮겨가 본격적인 창립을 준비했다. 당시 창립을 위해 물망에 오른 곳은 라파츠 내의 소포카키(Sopocachi)라는 곳



이었다. 창립 멤버들은 1928년 2월 24일 수도원을 설립하고 첫 미사를 봉헌했다. 당시 창립 멤버들은 다음과 같다: 성녀 데레사의 에두아르도(Eduardo de Santa Teresa) 신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식스토(Sixto de San Juan de la Cruz) 신부, 예수 마리아의 엘로이(Eloy de Jesús) 수사. 한편, 볼리비아 가르멜 창립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에르네스토 신부는 몬테비데오(Montevideo)로 갔다. 그는 그곳 공동체의 원장이었기 때문이다. 소포카키 가르멜의 수사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도원 곁에 아름답고 웅장한 현대식 성당을 지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당 사목에 헌신했다.

1939년 2월 14일 코차밤바(Cochabamba)에 새로운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이 수도원의 창립 멤버는 예수의 에르네스토 신부, 예수 마리아의 엘로이 수사였다. 이 창립을 위해 라파츠의 가르멜 수녀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코차밤바 가르멜은 1939년 7월 8일 창립되었다. 여기에는 3명의 수사들이 거주했으며 이들은 본당 사목과 지원자, 청원자들에 대한 양성에 전념했다. 1988년에는 케루-케루(Queru-Queru) 가르멜 수녀원이 있는 지역에 젊은 회원들의 양성을 위한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현재 이곳은 유기서원을 한 학생 수사들을 위한 학생 수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9) 에콰도르에서의 창립

앞서 우리는 가르멜 회원들이 1687년 어떻게 남미의 라타쿱가(Latacunga)에 진출해서 1705년까지 그곳에 머물며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이식하고자 했는지 살펴본 바 있다. 그 후, 남자 가르멜 회원들은 1928년 다시 그곳으로 진출해서 창립을 시도했다. 이 창립을 주도한 멤버는 가르멜의 동정녀의 이에로테오 발부에나(Hieroteo

Valbuena) 신부였다. 그는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가로서, 에콰도르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카르멘알토의 가르멜 수녀들의 도움으로 리마에서 출발해서 1928년 1월 16일 에콰도르에 입국할 수 있었다.

그는 에콰도르에 수도원을 설립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선교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선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락을 얻기 위해 에콰도르 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선교를 위한 실무 준비를 위해 스페인으로 떠날 무렵, 그는 이미 선교에 관해서 에콰도르 정부와 협약을 맺은 상태였다. 스페인으로 돌아간 그는 수도회 장상들로부터 에콰도르 선교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장상들은 이에로테오 신부를 도와줄 창립 멤버들을 선발해서 그와 함께 파견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에울랄리오 푸엔테스(Eulalio Fuentes) 신부, 베네딕토 가르시아(Benedicto García) 신부, 성 요셉의 브로카르도(Brocardo de San José) 신부. 이들은 배로 여행을 해서 키토(Quito)와 오리엔테(Oriente)를 거쳐 1928년 10월 17일 과테말라의 과야킬(Guayaquil)에 도착했다. 이바라(Ibarra)의 주교는 그들에게 수쿰비오스의 산미겔 성당을 관리하도록 위임했다. 그리고 성 요셉의 브로카르도 신부를 총장 대리로 임명했다. 선교 센터는 푼(Pun)에 세워졌으며, 이는 훗날 '엘가르멜로'(El Carmelo)로 불리게 됐다.

또한, 에콰도르 가르멜 회원들은 키토에 선교를 위한 수도원을 설립했으며, 이는 1935년부터 소화 데레사 센터로 사용되었다. 그들은 여기에 선교 후보 성인인 소화 데레사를 위해 봉헌된 네오고딕 양식의 웅장한 성전을 세웠다. 한편, 1934년에는 과야킬-라빅토리아(Guayaquil-La Victoria)에 르네상스 양식의 대성당도 세워졌다. 1940년에는 에콰도르 북서부에 있는 에스



메랄다스(Esmeraldas)에 대한 선교를 책임지게 된다. 에콰도르 가르멜 회원들은 여기서 1955년까지 선교에 전념했다. 그러나 성소자가 감소하면서 더 이상 이 지역에 대한 선교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1955년 콤포니아 선교수도회에 이 지역을 넘겨주고 철수해야 했다. 한편, 회원들은 1949년에 쿠엔카(Cuenca)에도 진출했다. 뿐만 아니라, 1977년에는 '엘호르단' (El Jordán)이라는 양성 수도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 수도원은 1982년 잉카 가르멜로 이전했다.

에콰도르 가르멜 회원들은 수쿰비오스에 대한 선교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이에 에콰도르 가르멜은 1985년 사도좌 대리구로 승격했으며, 그 중심지를 새로운 주의 주도시인 라고아그리오(Lago Agrio)에 두었다. 에콰도르 가르멜은 다음과 같이 여러 명의 주교를 배출했다: 루이스 알베르 토 루나 토바르 대주교(쿠엔카 대주교), 곤살로 로페스 마라논 주교(수쿰비오스 교구), 아니발 니에토 주교(과야킬 교구).

#### 10) 파나마에서의 창립

스페인 북부의 나바라 관구는 파나마에 수도원들을 창립한 바 있다. 1941년까지 콜롬비아의 우라바(Urabá) 지역의 가르멜을 책임졌던 성녀 데레사의 세베리노 신부(Severino de Santa Teresa)는 파나마의 후안 마이테귀(Juan Maíztegui) 주교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된다. 마이테귀 주교는 이 서신을 통해 세베리노 신부에게 파나마의 치리키(Chiriqui) 주에 대한 선교를 부탁했다. 이에 세베리노 신부는 자신의 소속 공동체인 콜롬비아 관구에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콜롬비아 관구에서는 여러 명의 멤버들을 파나마에 파견하게 된다. 이들은 파나마의 로스레메디오스(Los Remedios), 치리키, 파나마(Panama)로 파

견되어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1942년 2월 23일 콜롬비아 관구의 관구 참사회는 자신들에게 제공된 선교 지역을 공식적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파나마의 수도인 파나마에 수도원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렇게 해서 1943년 1월 11일 파나마 가르멜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1948년에는 파나마에 두 번째 수도원이 세워졌다. 그리고 1953년 여기에 가르멜 성모님께 봉헌된 네오고딕 양식의 대성당이 만들어졌다. 이 성당은 파나마 전체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당으로 손꼽힌다. 성당 내에는 다양한 성경 주제와 가르멜 관련 주제들이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콜롬비아 관구는 이 지역의 선교를 일시 중단해야 했다. 그 후 1976년에 산티아고 데 베라과스 교구의 소나(Soná) 본당을 인수하면서 다시 선교를 시작했다. 하지만 성소자들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이마저도 중단하고 철수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파나마의 수도원들은 1960년까지 콜롬비아 관구에 직접적으로 의존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0년 관구 총회는 파나마의 수도원들을 과테말라의 수도원들과 하나로 묶어 콜롬비아 산하 관구 직할 지부로 승격시켰다. 그 후, 1989년 12월 수도회의 총평의회는 파나마와 과테말라를 포함한 모든 중미 지역의 가르멜 수도원들을 하나로 묶어 총본부 직할 중부 아메리카 지부로 조직을 재편했다. 그리고 1997년 5월 13일에는 이 지부를 중부 아메리카 관구로 승격시켰다. 이 관구는 과달루페 성모님을 후보로 모신다.

(다음 호에 계속)



\* 영성 \*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3)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옮김(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 인천 수도권

### 외로움

이제 네 명의 언니동생들과 두 명의 외사촌들은 모두 자기들의 생활방식을 찾아냈지만, 홀로 세상에 되돌아온 레오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레오니는 천국에서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모 마리 도시페 수녀가 자기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생활에 부르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다. 분명 레오니는 삶을 상당히 힘겨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다. 인간은 가장 심원한 희망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다.

레오니가 1941년에 선종한 이후, 칸의 방문회 수녀원 원장 수녀는 레오니에 대한 회람장을 적으면서 그러한 좌절에 대해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레오니를 변호했다. “그런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스러운 수련자(레오니)는 그때까지 자신이 기울였던 노력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원장 수녀님들은 모든 면에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젊은 수녀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원장 수녀님들은 이제는 양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연한 판단 기준을 활용하지 않았습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허약했던 몇몇 수련자들은 버텨낼 수가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우리의 가엾은 아이(레오니)였던 것이지요.”

레오니는 가르멜의 언니동생들과 외사촌을 방문할 때마다 분명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레오니는 무엇보다도 셸린과 마리 게렝의 수도권성소를 확증한 여러 예식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깨닫게 되었다고 하겠다. 셸린은 1896년 2월 24일에 서원을 발했다. 그리고는 3주 후인 3월 17일 오전에 머릿수건을 받았다. 2년 전인 1894년 4월 6일에 레오니가 칸(의 방문회 수녀원)에서 착복했을 때 집전했던 같은 주교인 위고냉 주교가 (그 예식을) 집전했던 것이다. 같은 날 3월 17일 오후에는, 가르멜 수녀원에서 신부 예복으로 단장한 마리 게렝이 수도권복을 착복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관대한 마음을 지닌 레오니는 자기 동생과 외사촌의 행복에 기뻐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쁨은 분명 후회하는 마음과 뒤섞여 있었을 것이다.

4월 11일, 레오니의 수호성인인 레오 성인 축일에, 데레사는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레오니 언니, 언니의 작은 동생(데레사)이, 특히 언니 축일인 오늘, 언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난 언니에게 사진 한 장조차 줄 것이 없네. 하지만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머지않아 난 언니가 신성을 지니신 실



체, 곧 성체이신 예수님, 언니의 신랑이시며 내 신랑이신 분을 모시도록 하고 싶어. 사랑하는 작은 언니, 우리 다섯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 이라고 부를 수 있다니 얼마나 감미로운 일인지.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천국에서 뵈올 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이 감미로울까! 우린 그분을 어디든지 따라다닐 거야. 모두가 오로지 동정녀들만 부를 수 있는 같은 찬미가를 부르면서 말이지. 그리고 그때 우린 고통과 시련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말하겠지. “진정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여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런 고통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작은 언니, 난 내 마음속에 있는 언니에 대한 모든 깊은 생각들을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언니에게 되풀이해서 말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거야. 난 보통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천 배나 더 다정하게 언니를 사랑해. 왜냐하면 난 언니를 천상의 우리 정배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 안에서 우린 같은 삶을 살고, 그분 안에서 난 영원히 바로 언니의 작은 동생인 아기 예수의 데레사로 남아있을 거야.

## 세심증

레오니는 라 뤼스에 있는 게렝 집안 별장의 상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힘들었다. 그녀는 세심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1896년 7월 1일에 레오니는 데레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작은 동생, 내가 얼마나 널 자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널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감미로운 일인지 그저 네가 알아주었으면 해.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통해 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단다. 머지않아 그분을 만나 뵈러 가서, 완전히 그분 안에 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자 하는 네 바람을 난 이해하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넌 하느님을 만나러 갈 준비가 되어 있잖니. 확실히 넌 잘 받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난 그분을 빈손으로 마주 대해야 하거든. 그럼에도 난 두려워하지도 않는 만용을 부리고 있단다. 넌 이런 상황을 이해하겠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사랑하는 작은 동생, 넌 항상 잘 지내고 있거나 혹은 한결 낫다고 말하지. 하지만 난 그 말을 끝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단다. 네가 나에게 편지할 때, 진실을 정확히 말해주렴.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덕행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움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해줘. 오직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난 정말 행복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수녀원으로부터 내가 (얼기를) 바라는 메시지들이고.

만약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허영심에 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지 네가 알아주었으면 해.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지니고 산다고 하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즐거움과 허영심에 이끌리지 않을 수



가 없단다. 게다가 만약 세상에서 죽지 않는다면, 그땐 적어도 예수님께 대한 모든 신심과 사랑이 손상을 입게 되고, 시들어버린 꽃들 말고는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겠지. 내가 얼마나 많이 그분께 (시들어버린 꽃들을) 드렸었는지! 사랑하는 동생, 넌 내가 오랜 잘못들을 되풀이하지 않게끔 해줄 거지? 난 너무 나약하단다. 넌 내가 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

네게 간절히 청한다. 날 세심증에서 구해주시라고 정말 특별하게 하느님께 청을 드려줘. 난 늘 내 안에 고립되어 있어. 그렇게 되어 난 끔찍하게 망가져 버리고, 완덕에 나아가려는 시도도 가로막혀 있단다.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내 상처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넌 확신하겠지.

너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작은 언니,

레오니로부터

이와 같은 슬픔이 1896년 7월 9일에 레오니가 라 뤼스로부터 셀린에게 써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에(도) 담겨있다.

이제 라 뤼스에서의 생활도 이십 일 밖에 안 남았네. 그 점에 대해 난 우울하진 않단다. 비록 난 리지외에서 지낼 때처럼 여기서도 혼자서 똑같은 생활을 해왔지만 말이야. 점점 더, 난 지나가는 모든 것에서 덧없음을 바라보고 있고, 바로 그 점이 날 행복하게 해서서히 이탈하는 마음도 커지고 있지. 하지만 난 절대로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런 슬픔이 항상 내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비록 잠깐 동안이

나마 난 하느님께서 내가 머물기를 바라시는 그런 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는 있지만, 난 괴로워 - 난 끔찍하게 괴롭단다. 게다가 귀양살이가 내겐 너무 긴 것 같아. 그러한 귀양살이가 내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겠지... 내 사랑, 네가 나에게 편지할 때, 작은 테레사에 대한 소식을 전부 알려주렴. 제발, 나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말고. 난 전부 알고 싶거든.

###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임

테레사는 레오니의 7월 1일자 편지에 대해 네 페이지 분량으로 답장을 했다. 평소처럼 밑줄을 그은 단어들로 가득 채워서.

사랑하는 레오니 언니, 난 지난 주일에 언니의 사랑스러운 편지에 답장하려고 했어. 만약 내가 그 편지를 받게 되었다면 말이야. 하지만 언니도 알다시피, 우린 다섯 명이나 되고, 난 가장 나이 어린 막내야. 그래서 난 다른 언니들이 편지들을 보고 난 후에야 여유 있게 보거나, 아니면 전혀 읽지 못하거나 그렇지! 난 금요일까지도 언니 편지를 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작은 언니, 언니도 알겠지만, 내가 너무 늦게 편지 써 보내는 것이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언닐 만나는 것이 날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언니에게 감미롭게 느껴진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아. 왜냐하면 지상의 그 어떤 것도 언니에겐 더 이상 의미 없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내가 언니에게 확신하는



바는, 하느님께선 언니가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지. 그분은 단 한 번의 눈길, 단 한 번의 사랑의 탄식으로도 만족하시지. 내 경우엔, 완덕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왜냐하면 완덕에 대한 실천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성질부리거나 혹은 심지어 말을 듣지 않아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작은 아이를 봐. 만약 그 애가 부루퉁한 채 구석에 숨어서,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에 울고 있다면, 그 애 어머니는 분명 말 안 들은 것에 대해 그 애를 용서하려 하지 않겠지. 하지만 만약 그 애가 자그마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미소 지으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가서는, “나한테 입맞춤해줘. 난 다시는 말 안 듣고 그러지 않을게”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애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어린애다운 장난을 용서해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머니 사랑스러운 어린 것이 다음번에 같은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하지만 그건 별 상관이 없는 거야. 만약 그 아이가 다시금 어머니를 진심으로 껴안는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벌 받거나 하진 않겠지.

언니가 내 건강에 대한 소식을 물었지. 글썄, 사랑하는 언니, 난 더 이상 기침하지 않아. 답변이 충분하게 된 거야? 내가 더 이상 기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어느 날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못 데려가시진 않을 거야. 난 작은 아이처럼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것은 따로 없어.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내 여정에 들어가는 모

든 비용과 천국 입장료를 지불해주셔야만 할 거야! 안녕, 사랑하는 언니. 내 생각에, 난 언니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있어.

## 작은 길

데레사는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가르쳤으며 주의 깊게 경청하였기 때문에 타고난 수련장이었다고 하겠다. 그런 연유로 레오니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다. 둘 사이의 나이 차이는 정말 미미했다. 왜냐하면 어린 동생이 자기 언니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 언니(레오니)는 자기를 끌어당기는 모든 것, 하지만 소심한 성격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이해시켜주고, 부드럽지만 엄하게 자극을 가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시기 동안, 데레사는 완덕의 길을 따라 거인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1895년 6월 9일에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한 봉헌 행위라는 봉헌문을 작성한 이후, 그 작은 “사랑의 산 제물” (데레사)은 순수한 사랑을 쉽 없이 실천하면서 불타올랐던 것이다. 하루하루 데레사는 다음의 복음서 구절에서 이끌어낸 풍요로움을 더욱 증진시켰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 18, 3)

섭리적인 차원에서, 레오니는 바로 그런 영적 어린이의 길을 통해 포기과 믿음으로 (자신을) 열어젖혔으며, 온갖 고통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평화 속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러한 창조적이고 어린이와 같은 정신으로 말미암아, 아웃사이드였던 레오니는 온전히 하느님을 갈망하는 이들, 사랑



때문에 고통과 굴욕을 받아들이는 이들 무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들의 보잘것없음에서 위대함을, 그들의 약함에서 강함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데레사는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초연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냈다. 그녀는 건강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런 태도가 주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데레사는 쾌활하게 레오니를 안심시켰으나, 레오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데레사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가시게 하면서 잘 낮지 않는 기침을 유발시키는 목의 염증에 대해 당연히 걱정스러워했다. 레오니도, 다른 자매들도, 데레사가 1896년 4월 초에 두 번씩이나, 한번은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사이의 밤 시간 동안에, 그리고 다른 한 번은 다음 날에 각혈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로지 곧자가의 마리 원장 수녀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원장 수녀가 다른 누구도, 심지어 (전 원장 수녀였던) 폴린조차도 그런 사실에 대해 알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데레사는 순명의 차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모든 수녀들은 데레사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레오니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에 레오니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침을 하게 되면 젊은 폐결핵 환자들의 체력이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레오니는 자신이 사랑했던, 오래전에 자기를 다정하게 “맘마”라고 불렀던 어린 동생을 염려했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21쪽에서)

위기의 시대는 또한 기회의 시대라고도 한다. 우리가 오히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느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매일의 삶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해 나간다면 나를 통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척 친지들 그리고 이웃과 친구, 동료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진다. 하지만 나 자신이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나 역시도 느슨하고 나태한 삶을 산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점점 내게서 그리고 우리 삶과 현재의 삶에서 멀어지고 바알의 시대처럼 불신앙과 미신이 난무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성조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도 야훼 하느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느님이심을 믿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한 다른 850명의 예언자들과 용감히 싸워 이긴 엘리야처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원한 삶을 위해 과감히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코로나로 인해 물든 나태함과 싸워나가야 하겠다.

우리의 행복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있는 것! 하느님만으로 족하리라!(Solo Dios Basta!)는 사모 데레사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옹달샘 \*

## 인간(人間)이 되어 오신 아드님을 통해 당신을 계시(啓示)해 주시는 하느님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인천 수도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 오신 성자(聖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 1,1-2)

원인과 결과의 법칙인 인과율(因果律)과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존재(存在)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理性)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은 당신께서(연역적 방법으로) 계시(啓示)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계시(啓示)란 우리가 모르는 하느님과 하늘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관(棺) 안에 시신(屍身)이 있는지 없는지 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듯이, 계시(啓示)는 하늘나라와 하느님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열어 밝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하느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와 하나” (요한 10,30)이시고 하느님 품 안에 계신 “하느님” (요한 1,1-2)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계시(啓示) 내용이 두 원천(源泉)

즉,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록되지 않은 하느님의 말씀인 성전(聖傳 Holy Tradition, Sacra Tradition)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교리를 배우고 연구해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튼튼해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전 즉 교리를 “들음에서 신앙이 생기기” (로마 10,17)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진하고 명백하게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해주시려고 피를 흘리시며 지극한 고통 중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3) 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귀중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느님은 사랑” (1요한 4,16)이심을 우리에게 계시(啓示)해 주셨습니다.\*



\* ? \*

## 성녀 데레사 사전 (11)

토마스 알바레스 신부 외 다수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인천 수도원

**성녀 데레사가 활용한 성경의 상징들**  
(몇 년 전에 연재했던 것을 이어서 게재합니다)

14) 깃발들(banderas): 이 용어 역시 군사 용어로서 성녀의 영성에서 독특한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성녀는 당시 통용되던 대중적인 상징 언어를 받아들였다. 비록 성녀가 『영신수련』에 나오는 ‘두 개의 깃발’이란 주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작품에 나오는 성 이냐시오의 수덕적인 전망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자서전』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신비적 현시들 가운데 하나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신부가 속해 있는 예수회의 수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수도회 전체에 관해서도 위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흰 깃발을 손에 들고 천국에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자 38,15). 성녀는 자신의 고향인 아빌라시와 가정에서 강한 군사적인 환경에서 살았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로렌소는 이냐키토스(Iñaquitos) 전투에서 피사로(Pizarro)에 대항해 싸우던 야전군의 기수였다. 그래서 성녀의 펜에서 깃발의 상징은 상당한 수덕적-신비적 현실 감각을 얻게 된다. 즉, 이 상징은 다양한 의미를 획득했다. 깃발은 ‘전투’의 상징을 구성하는 그룹(싸움, 무기, 소위, 대장, 병사들, 성, 포대, 대포...)에 속한다.

『자서전』에 보면, 성녀가 받은 마지막 신비적인 은총들은 성녀에게 신비적인 기수의 직분을 수여해 주었다. 그러므로써

성녀로 하여금 탑의 높은 곳에 진리의 깃발을 게양하게 해주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군기를 크고 넓게 펴는 것도 여기서입니다. 사실 이 요새(要塞)의 사령관은 하느님의 깃발을 달기 위해 제일 높은 탑에 올라갔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올림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안전한 자리를 차지한 자로서 아래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이제 그는 위험을 원합니다. 거기서 그는 이승의 온갖 것이 얼마나 하찮고 시시한 것인지 아주 분명히 보고 그 덧없음을 발견합니다”(자 20,22). 또한, 『완덕의 길』에서는 독자들인 가르멜 수녀들에게 가난의 깃발을 가리키며 이 수칙을 전해주었다(완. 바 2,8). 그리고 그들이 간직한 관상가의 자격에 더해 아무런 무기 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치 제삼회원들의 기수처럼)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도록 가르쳤다. 즉, 자신의 신앙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이루는 것, 그러나 침묵 중에 이루는 것이다(참조. 시 29). 성녀는 십자가의 깃발에 관한 자신의 여러 시 가운데 어느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깃발이여, 그 보호 속에서 가장 나약한 이가 강해진다네...”(시 18,1; 참조. 시 19.20).

성녀의 여러 편지가 간직한 대화적인 언어에서 대중적인 언어로 된 상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서간 162, 그라시안 신부에게 보낸 편지, 1576년 12월 13일; 서간 347,16, 성 요셉의 마리아 수녀에게 보낸 편지, 1580년 7월 4일).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후안 수아레스(Juan Suárez) 신부



가 보낸 편지에 대한 성녀의 논쟁적인 답장에 다음과 같이 담겨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임금님의 신하들입니다. 성자의 사람들(=예수회원들)과 성모님의 사람들(=가르멜 회원들)은 용감한 병사들로서 우리 임금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분의 깃발이 가는 곳만을 바라봅니다” (서간 228,7, 1578년 2월 10일).

15) 입맞춤(beso): 이것은 성경의 연애사에서 성녀 데레사의 영적 상징으로 이전한 이미지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상징은 아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아가의 첫 번째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아, 제발 그이가 내게 입 맞춰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답니다” (아가 1,2). 성녀는 자신의 작품 『아가 묵상』의 1-3장에서 이 구절을 불가타 성경 번역본에 따라 번역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관통하는 표어로 취했다: “주님, 당신 입술의 입맞춤으로 제게 입 맞춰 주소서. 당신의 가슴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반면, 『서간집』에서는 유비적이 아닌 말 그대로 인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입맞춤으로 사용했다. 성녀는 주로 『아가 묵상』에서 ‘입맞춤’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인간의 영혼에 대한 하느님의 입맞춤이란 의미로 사용했다. 이 표현은 영혼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평화와 우정의 의미도 담고 있다(묵상 1,12). 반면, 성녀는 ‘거짓 평화’를 가져다주는 유다의 입맞춤 같은 ‘거짓 입맞춤’에 대해서도 말했다(묵상 2,13). 이와 달리, 성녀에 따르면 주님께서 선사하시는 입맞춤은 깊은 평화의 원천이다. 또한, 성녀는 이 평화가 7궁방에 이른 영혼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표징 중의 하나로 보았다: “이런 결과(평화)는 전에도 말한 바 있는 기도의 여러 단계에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와 함께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영혼이 당신께

나아갔을 때, 아가의 신부가 청하던 그 입맞춤을 해주시는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신부의 청을 다 들어주시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7궁 3,13). 성녀는 『아가 묵상』 3, 15에서 다음과 같이 주님의 입맞춤을 청하며 글을 맺었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당신 입술의 입맞춤으로 제게 입 맞춰 주소서’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당신께 청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이 우정과 일치를 깨려 들지라도, 저의 생명이신 주님, 부디 저의 의지가 당신의 뜻에서 떠나지 못하게 동여매 주십시오. 나의 하느님, 나의 영광이시여, 제가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진실히 ‘당신의 가슴은 포도주보다 낫고 감미롭습니다’ (아가 1,1)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소서.”

16) 결혼(bodas): 이는 성녀 데레사가 인간이 하느님과 맺는 최종적(천상적) 단계를 표현하기 위해 받아들여서 비유적으로 사용한 어휘이다. 결혼이 간직한 풍부한 상징의 내용은 다양하다. 이 상징은 복음의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하는 주님의 비유에서 유래한다(마태 22장). 성녀는 이 비유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진 않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영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를 유지했다. 성녀는 『완덕의 길』에서 수도생활에 대해 말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결혼식을 고대하는 가운데 충실한 신부들이 되도록 권고했다: “이미 약혼한 우리들은 결혼을 하여 시집가기 전에 어찌 우리 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완.바 22,7: 제1원고, 즉 에스 코리알 본에서는 뉘앙스를 변경시켰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그리고 모든 영혼은 세례를 통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이전에 그리고 신랑께서는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완.에 38,1]). 외침 4,2에서 성녀는 주님 앞에서 “결혼 예복을 입고”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 은총을



청했다. 마찬가지로, 여러 축일, 특히 젊은 가르멜 수녀들의 종신서원과 연관된 다양한 시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서원’은 그리스도와 의 결혼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결혼이다. 왜냐하면, 서원은 “천상 결혼식” (시 29; 참조. 시 30,1)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성녀가 『영혼의 성』에서 신비적인 열쇠로 이 결혼의 상징을 발전시킬 당시에는, 더 이상 결혼과 관련된 비유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지 않으며 이 어휘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17) 포도주방(bodega): 이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랑의 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분명히 『아가』(2,4: “임금님은 나를 포도주방으로 데려가...” )로부터 취한 상징이다. 성녀는 이 주제를 위해 『아가 묵상』 제6장을 할애했다. 이 장은 아가의 이 구절을 자신의 모토로 간직하고 있다: “임금님은 나를 포도주방으로 데려가 내 안에 사랑을 정돈해 주셨네” (참조. 5장 1절). 뿐만 아니라, 성녀는 『영혼의 성』에서 신비적 사랑을 제시하기 위해 이 상징을 활용했다. 포도주는 사랑이다. 포도주방은 하느님의 공간이자 그분의 순수 무상성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나는 저 포도주방을 주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데려다가 두시는 그 자리로 풀이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5궁 1,12; 참조 5궁 2,12; 7궁 4,11). 그러나 “포도주와 포도주방”이란 상징은 『아가 묵상』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발전되었다. 이 상징들은 『아가』의 성경 시로부터 주제화되어 『아가 묵상』을 통해 깊이 숙고되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잔뜩 취함’ (borrachez, 묵상 4,3-4; 7,6)이라는 이미지 또는 ‘취기’ (embriaguez, 묵상 4,4-5; 6,3-4; 7,5), ‘잔뜩 취하다/잔뜩 취한 이들’ (emborrachar/emborrachados,

묵상 6,3; 7,5)로 확장되었다. 이 상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성경 시를 드러내는 반향이자 연장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독특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18) 향로(brasero): 아로마 향로는 성녀 데레사가 영혼 깊은 곳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상징이다. 그것은 “불, 화염, 불꽃, 열기”와 같은 어휘들을 아우르는 그룹에 속한다. 그리고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상기시킨다(묵시 8,4: “천사의 손에서 향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가 3,6: “연기 기둥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몰약과 유향, 이국의 온갖 향료로 향기를 풍기며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성녀 데레사의 작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영혼의 성』에서만 발견된다. 성녀가 십자가의 성요한의 말을 충분히 들으며, 비록, 그가 향로를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그에게서 불과 아로마 향기의 이미지가 집요하게 드러난다고 하며 이 상징을 언급했다(참조. 노래B 16,1; 『아가』 본문을 주해하면서, 노래B 17,10).

향로는 성녀 데레사가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경험한 신비적인 체험들 가운데 하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내면의 깊은 곳에 향로가 있어 거기에 던져진 짙은 향과도 같이 그 불꽃과 타는 자리가 보이지는 않건마는, 그 열과 그 향내는 영혼에 스며 퍼지고, 거듭 말합니다만, 육체에까지 미치는 것이 일쑤입니다” (4궁 2,6). 이러한 성녀의 체험은 훗날 좀 더 깊어지고 분명해졌다. 향기를 발하는 향로와 동일시되는 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하느님과 그분의 활동이다. 성녀는 이 향로를 사랑의 상처(herida de amor)와 연관지었다: “그 고통이 마치 폐부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향로... 거기에서 불티 하나가 튀어나와 영혼에 닿게 되면 저 뜨거운 불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 불티는 아직 영혼을 살라버릴 만큼 거세지는 못하더라도 한편 또 흐뭇하기 짝없는 것이어서 영혼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아울러 불티가 닿자마자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 비유는 내가 생각해낸 것치고는 가장 그럴듯하게 여겨집니다”(6궁 2,4). 이러한 체험은 자 29,13에 나오는 그 유명한 “화살로 인한 상처”라는 맥락에 자리한다.

이 글이 작성될 즈음의 시기 또는 그보다 약간 전에, 성녀는 자신과 자신의 수녀들이 아빌라의 겨울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만든 향로와 향 덩어리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동생인 로렌소에게 조언해 주었다(참조. 서간 177, 1577년 1월 17일자).

19) 팔(brazo): 이는 성경의 내용을 상기하는 이미지로서, 하느님과 관련해서 언급될 때 그분의 능력이나 힘을 일컫는다(루카 1,31; 히브 13,17).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성녀 데레사의 여러 작품에도 등장한다: “주여, 능하신 팔을 벌려주소서. 그리하여 그의 생애가 덧없는 속에서 흐르지 않게 하소서”(6궁 6,4: 여기서 요르단강 또는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한 암시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보다 좀 더 자주 사용되는 ‘팔’의 이미지는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팔”(자 17,2; 완.바 27,6 등. “사랑의 팔들”: 시 3)을 가리킨다. 성녀 데레사의 생애에는 1578년의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암시되고 있는 실제적인 에피소드가 있다. 그것은 1577년 성탄절 전야에서 왼쪽 팔이 탈구된 것을 말한다. 이는 이듬해인 1578년 5월 메디나의 어느 민간 의사 덕분에 치료됐다(서간 244,4).

20) 찾음(búsqueda): 하느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성경의 권고(시편)나 하느님 나라

를 먼저 찾으라는 성경의 권고(복음서)는 성녀 데레사의 신비 체험에서 반향되어 드러나고 있다. 성녀는 하느님의 부재(不在)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 초조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시편 41,4를 반복해서 외쳤다: “그는 ‘네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고 자신에게 묻습니다”(자 20,11). 그로부터 몇 년 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성녀의 내면에서 솟아났다: “내 안에서 너희를 찾아라.” 이는 『괴롭힘』(Vejamen)을 쓰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기에 십자가의 성 요한을 비롯해 성녀의 여러 벗들이 참여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 내적인 말씀은 성녀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찾음을 주제로 시를 쓰는 데 영감을 주었다: “영혼이여, 내 안에서 너를 찾고 / 네 안에서 나를 찾아라”(→ 하느님을 찾음 / 비난 연설)

21) 머리카락(cabello): 이는 아가(4,9)에 나오는 고전적인 이미지로, 이 상징은 여러 신비가들에 의해 자주 재가공되어 사용되곤 했다(참조. 십자가의 성 요한: 노래B 31). 성녀는 이 상징을 단 한 번만 사용했다(완.바 16,2): “하늘나라에서 임금님을 뵈셔다가 동정 마리아의 품안에 안긴 것이 겸손이요, 그 임금님을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로(de un cabello) 뵈셔다가 우리 영혼에게 안겨주는 것도 겸손입니다.” 또한, 7궁 4,13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겨드린 마리아 막달레나가 암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머리카락의 상징에 대한 반향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뭇을 택했다(참조. 루카 10,42)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자기 머리채로 닦아드렸을 때(참조. 루카 7,37-38), 마르타가 하는 일을 이미 다 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벌써 새벽인 걸요  
Ya viene el alba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애 문지기야 내다보라 누가 부르나 보다  
- 천사들이에요 벌써 새벽인 걸요 -

꺾전을 매우 올려주는 게  
아름다운 가락인가 보다  
<브라스>야 벌써 낮이로구나  
색시나 구경하러 나가 보자

애 문지기야 내다보라 누가 부르나 보다  
- 천사들이에요 벌써 새벽인 걸요 -

사또님 집안이라더냐  
아니면 어느 집 처녀라더냐  
- 하늘 아버지 딸이래요  
별 같이 반짝이는 걸요 -

애 문지기야 내다보라 누가 부르나 보다  
- 천사들이에요 벌써 새벽인 걸요 -



## &lt; 해설 &gt;

벌써 삼월이고 평년보다는 많이 늦었지만, 월초에 이미 사순절도 시작되었는데 이번 달에도 성녀 데레사의 시 중에서 <성탄송가>로 분류되는 시를 소개하게 되어 좀 어색하긴 하다.

아직 소개하지 못한 <성탄송가>에 해당되는 시가 몇 편 더 있지만, 그것들은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시(詩)들이라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심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데 반해서, 위의 시는 사실 제목이나 시의 내용이 그다지 성탄절과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두 구절의 가사를 전후로 하여 세 차례의 후렴으로 된 짧은 노랫말로 이뤄진 성녀가 살던 중세시대 스페인 중부 까스피야 지방의 목동들이 부르는 캐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녀가 어느 해 성탄 시기에 자신이 설립한 어느 수녀원에서 초라하게 꾸며진 구유를 보고 깊은 묵상 끝에 쓴 이 짧은 대화체의 시는 우선 이렇게 상상하며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노래의 첫 번째 후렴에서 ‘애 문지기야, 밖에 누가 와서 부르나 보다. 얼른 좀 내다보아라!’ 하고 어느 집 안주인이 말을 하니, 하녀가 잠깐 밖을 내다보더니 ‘천사들이에요, 벌써 새벽처럼 환해요!’ 하고 대답한다. 이어서 첫 번째 구절의 노랫말이 시작되는데, 안주인이 ‘내 귀에도 무척 고운 가락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애 <브라스>야, 벌써 대낮처럼 환해졌구나, 어서 우리 함께 새색시 얼굴이나 보러 가자!’ 하며 옆에 있는 하녀 또는 시종에게 채근한다. 그리고 후렴을 노래하고 두 번째 노랫말이 이어지는데, 안주인이 잠깐 밖의 동정을 살피고 온 하녀에게 저 새색

시(규수)가 지체 높은 귀족 가문의 따님인지 궁금해하며 물어보니까, 시종이 대답하기를 ‘그분은 하느님 아버지의 따님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보기에도 별같이 찬란하게 빛나시는 모습이었어요.’ 하고 대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렴을 한 번 더 하고 노래가 끝나는데, 한편 우리는 이 시를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2천 년 전 베들레헴의 추운 들판에서 양떼와 함께 풍찬노숙을 하는 목동들이 추위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허술하게 지어놓은 움막이나 천막 속에서 쉬고 있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밝은 별과 천사들의 아름다운 합창 소리, 그리고 얼마 전에 자신들 곁을 급히 지나가서 저쪽 한 곳 마굿간에서 머물고 있는 젊은 나그네 부부를 생각하면서 목동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서, 늙은 목자와 어린 목동 사이에서 오갈 듯한 말들을 노래하는 형식으로 쓴 시(詩)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는 성녀가 사시던 그 시대의 정서에 맞게 만든 하나의 캐롤인 <성탄송가>이면서도, 정작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없어서 이상하기는 하지만, 분위기는 강생하신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동정 성모님에 대한 찬가라고 할 수 있겠다.\*



\* 선교 \*

## 신앙인들에게 코로나가 주는 위험 (선교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

양상룡(로사리오의 도미니코) 신부/ 중국 선교

작년 말 12월에 동생 신부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 서울가톨릭대학교 신학과에 지원한 예비신학생이 6명밖에 없다는... 80년대 중반인 우리 때에는 신입생이 무려 80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래서 가톨릭대학 신·철학부가 있는 혜화동의 가톨릭대학교에서는 각 본당으로 자녀들을 혜화동에 있는 가톨릭대학에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아마도 교육부에서 각 대학마다 주는 학생 쿼터에 따른 지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듯 여겨졌다. 하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장래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제 부족 현상이 생각보다 급격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서구와 미주의 상황처럼 사제 부족으로 인해 본당 폐쇄와 본당 합병 등의 문제가 조만간 도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 내 있는 7개 대신학교 중에 부산 신학교가 문을 닫았고 조만간 다른 신학교들도 존폐가 눈앞에 닥친 상황인데 말이다.

코로나로 지난 2년여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맨날 뉴스와 신문지상 그리고 인터넷상에선 하루도 빠짐없이 코로나가 단골손님이었다. 아니 단골손님이 아니라 주요 화제가 아니었나 한다. 이제 3년째로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의 관심도 걱정도 서서히 무디어 가고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몇천 명이고 중증환자가 몇백 명이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나오든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위기의 상황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 위기의식이 점차 희미해지는 게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무엇일까? 코로나로 인한 위험? 아니면 백신의 부작용의 위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생긴 영업 금지 또는 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소상공업자들의 생계의 위험? 등등 코로나로 인해 생긴 많은 어려움과 부작용 위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일까?

특히나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신앙의 나태해짐이 아닌가 한다. 코로나 전에는 나름 신앙생활에 충실했던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 참여가 장기간 금지되고 또 종교적 행사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지긴 했지만 한번 느슨해진 맘은 우리를 이리저리한 이유와 핑계를 대며 신앙의 의무를 거스르게 만들곤 해왔다. '내 컨디션이 안 좋는데 혹시 미사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쩌지?'

'어차피 코로나 시대인데 집에서 TV로 미사 참석하지.' 혹은 '성당에 사람이 많은데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애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해?' 하면서도 막상 애들을 데리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식당엔 거리낌 없이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의 서구화가 급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로 인한 여파는 한국 교회에 큰 어려움과 위기로 다가올 듯하다. 수도회의 보물은 성소자이고 마찬가지로 교회의 중심은 교우들이다. 수도회에 성소자가 없으면 유럽 교회의 모습과 같이 다른 수도회와 합병되거나 문을 닫아야 하고 교회에 사제가 없고 신자가 없으면 교회 역시도 문을 닫아야 하고 또 점차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예전에 불과 20여 년 전에 농담 삼아 말하던 텅 빈 유럽 교회의 쓸쓸한 모습이 조만간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으리라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악은 늘 우리 곁에서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을 좀 먹길 노리고 있다. 그래서 성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1베드로 5,8~9)하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악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히브리 4,12)

예수님이 이 지상의 삶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준 유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는 가서 세상 사람에게 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를 전하여라” (마태 28장) “그러자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였다” (마르 16장)라고 성서는 전한다. 믿는 모든 이들, 즉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교하라는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선교의 소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궁극적인 사명이고 의무이다. 선교는 바로 믿는 모든 이들이 해야 하는 지상 의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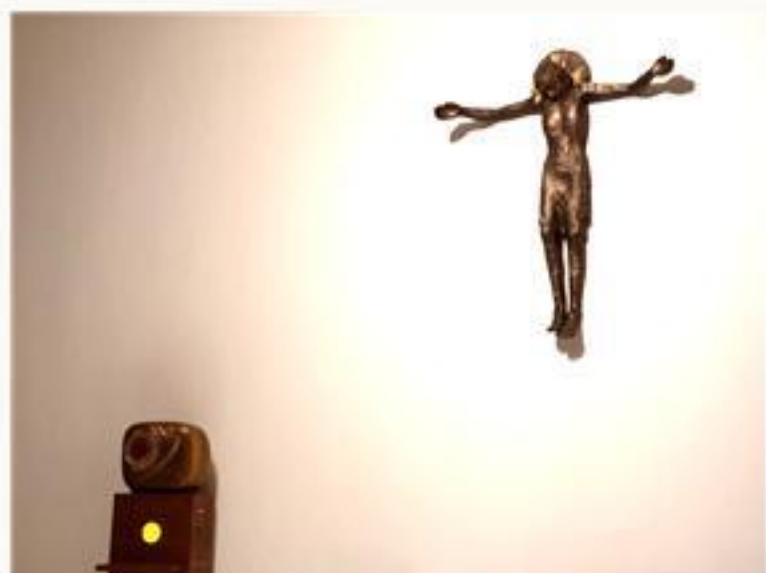
지 사제나 수도자,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의무가 아닌 것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육화적 삶이고 바로 나 스스로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는 내적 선교이다. 이렇듯 내적으로 우리 자신을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쉬 악마가 쳐 놓은 세속의 즐거움과 쾌락에 젖어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점차 신앙의 활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전교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음의 육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복음으로 준비되고 무장된 신앙인들은 이제 그러한 열정과 말씀의 힘과 내적인 변화를 통해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족, 이웃, 친지, 친구,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된다. 뭔가 모르겠지만 남들과 다른 거룩하고 성스러운 향기를 풍기는 삶,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육화된 삶을 통해서 풍겨 나가는 거룩함이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맘을 전하게 되고 이게 바로 외적 선교의 삶이다. 이는 과거 잘못된 강요와 무력에 의한 이식 선교, 즉 유럽인들의 문화 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선교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선교이다. 이는 상대방의 문화와 환경 등을 존중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문화존중주의에 바탕을 둔 복음의 토착화에 기반을 둔 선교라야 한다. 초대 교회부터 이런 선교의 모습을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아테네 아레오파고스 법정에서의 선교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12쪽으로)



\* 성소 \*



## 가르멜로(路) 74-55길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얼마 전 1주일 정도 피정(避靜)을 했다.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에서 자신을 조용히 살핀다는 본래의 뜻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머물렀다. 피정 시작 전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다. “이번 피정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곧이어 “쉬려고요…” 라는 나의 솔직한 대답.

그냥 쉬고 싶었다. 일, 관계, 어딘가 어수선한 나의 삶 등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 쉬고 싶었다. 그리고 쉬었다. 자고 싶으면 자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먹을 때 먹고, 배도 꺼뜨릴 겸 산책하고, 책도 좀 보다가 이내 잠에 빠져들고…

하루, 이를 지나며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조금씩 개운해지고, 자연을 벗 삼아 걸으며 ‘좋다~’ 라는 생각이 맴돌았다. 그러면서 ‘고생하면 보이는 것들’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함께 있어도 주어져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들, 그래서 좋다, 고맙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나름 고군분투하며 살다 보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면서 ‘좋고, 고맙다’ 라고 느껴졌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거룩하고 특별한 그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시선이 전과 달라졌음을 느낀다면 나에게겐 과분하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잠시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안에서 고요하게 시간을 보내보길 권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듯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벗 삼아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살도록 마련해주신 그 터전에서…^^ 그 시간이 우리 영혼에 단비를 내려줄 것이다.



성소문의 :010-2140-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예수의 성녀 테레사와 함께 걸어온 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 1. 프롤로그

**내레이션** : 쟁반을 들고 들어오신다. 4개의 컵에 가득 담긴 따끈한 물. 사람은 둘인데 컵은 네 개다. '누가 또 오시려나?'

**박종인 신부** : 아냐. 추우니까 따뜻한 물 많이 마시라고. (물병 가리키며)이건 보리수청인데, 몸에 좋다니까 타서 먹어요.

**내레이션** : 말씀 한 자락, 눈길 하나에도 사랑이 배어있으시니 따뜻하고 정겹다.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오신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83세의 노 수사가 되었고, 그의 수도생활은 진한 포도주처럼 농익었다. 입회 후 지금까지 단 두 번 흔들렸다는 그의 성소. 성모님께서 붙잡아주신 첫 번째 위기에 이어 또 한번(75년 5월 중순)의 위기가 찾아왔다.

**박종인 신부** : 침묵 중에 오롯이 성녀의 가르침대로 하느님과 단둘이 살려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복직을 해도 결혼을 해도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 한다.' 는 생각이... 그런데 마음이 평화롭고 좋은 게 아니라,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안절부절, 그런 하루를 보냈어요. 그 당시 완덕의 길을 읽고 있었는데, '우리를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당신의 뜻에 우리의 뜻을 두는 것, 그리고 피조물을 이탈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32.9)라는 말씀에서 다시 중심을 잡게 됐어요.

**내레이션** : 성모님과 대 테레사 성녀께서 붙잡아주셨다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접한 후 지금까지 47년 이상 동안 성소의 흔들림은 그림자도 없었다며, 그건 행운이라고 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일구어갔던 영혼구원의 길, 그의 수도생활은 어땠을까?

**박종인 신부** : 입회하고 2년 동안은 묵상기도를 할 때, 어떤 땐 미사 중에도 눈물이 나서 매일 수건을 적시곤 했어. 슬퍼서 라기보다 10년 동안 준비하고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고, 또 참으로 좋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였구나 하며 집안을 돌아볼 때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성녀께서, '기도는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 그게 관상이지. 라우렌시오의 '하느님 현존 수업' 이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 '안일과 기도는 서로 용납될 수 없다.' (완덕의 길 4,2)는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니 기도에 집중이 잘 되더라고.

**내레이션** : 이렇듯 관상기도가 자리 잡히기까지는 신앙의 밑천이 있어야 할 텐데, 은행원 10년 동안 매일 복음 1장, 서간 1장씩 읽고 미사와 성체조배, 영적독서 등에 집중했던 시간의 내공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 2. 첫 수련자였던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박지현** : 신부님께서서는 1975년 3월에 입



회, 신학교 2학년에 편입. 4학년 때 수도복을 입으시고, 78년도에 1년 수련을 시작하셔서 79년 1월에 첫 서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종신서원과 부제품은 1982년에 로마에서 받으시고 1982년, 8월에 귀국하셔서 그해 9월에 인천 수도권 대성당에서 서품식을 하셨다고 회고해 주셨어요.

**박종인 신부** : 그래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재속회 강의부터 시작을 했고요. 9월 25일에 사제 서품식을 했죠. 제가 지부장(1993~96년)이었을 때, 재속회원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어요. 수련자를 통제하기보다는 넓은 울타리 안에서 맘껏 자기 할 일 하도록 인격적으로 허용해주려고 했어요. 지식보다 하느님 만나는 기도생활에 힘쓰길 바랐죠. 서약자들 면담할 땐, 묵상기도와 성무일도를 잘 바치지만 묻고 그냥 다 통과시켰어요. 재속회원은 기도와 침묵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느님도 잘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지현** : 네, 저희가 소중히 새겨야 할 말씀이네요. 신부님께서서는 후배 수사님들을 오랫동안 양성하셨다면데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박종인 신부** : 1987년에 로마 총본부 총장님께서 저를 수련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제 첫 수련자는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이세요. 겸손하신 학자 부모님 슬하에서 잘 교육받으신 분이죠. 기억나는 게 있다면... 수련자였던 대주교님께서 성녀가 즐겨 바치신 기도문을 번역해줬어요.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을 만유 위에 흠송합니다. ~ (중략)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저는 원합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소서. 그대로 하리이다.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분하소서.' 성녀께서 하루 50번 이상 바치시면서

하느님 현존을 체험한 화살기도예요.

**내레이션** : 수련장으로서 만났던 첫 수련자가 서울대교구 교구장님이 되셔서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 되셨다. 그 마음이 어떠실지 여쭙보았다.

**박종인 신부** :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우리 대주교님을 성인 만드시기 위해 시련도 주시겠지만, 그 십자가를 잘 지시도록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주실 거예요. 저희는 그저 뒤에서 기도해드리면서 힘을 실어드리는 거죠.

**박지현** : 신부님, 수련장 시절에 겪으신 에피소드나, 기억나는 일이 또 있으실까요?

**박종인 신부** : 수련자들을 데리고 등산을 자주 다녔어요. 없던 길도 만들어가면서 즐겁게 걸었죠. 현재 관구장이신 김형신 이나시오 신부님이 산딸기를 따서 저희에게 주시더라고요. 착하고 남을 잘 챙겨주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 3. 남남끼리 서로 사랑하며 걷는 십자가의 길.

**내레이션** : 수련자들과 알콩달콩, 추억을 쌓아갔던 그 시절, 수련장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철칙이 있었다는데...

**박종인 신부** : 수련자들을 믿어주고 자유를 주는 편이었어요. 리포트를 써오는 숙제를 내주지 않고, 각자 자유롭게 좋은 글을 써오도록 했고, 매주 써온 노트를 검열하고 싸인을 해줬죠. 모든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성녀께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며 내가 고쳐줘야지 하는 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나는 그것을 유혹(자서전 13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죠. 특히 초보자는 나쁜 것



은 내 것만 보고, 남에게선 좋은 점을 보고 본받으라고 하셨어요. 물론 수련장과 장상으로서 잘못하는 건 지적도 하고 고쳐 줄 의무가 있지만, 너무 그것에만 매달리며 성화하지 않고 하느님께 맡겨드렸지요. 위 말씀이 수도생활과 기도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내레이션** : 엄격하셨지만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자식들을 믿어주고, 자유를 주셨던 아버님의 삶과 교육이, 신부님께 좋은 유산으로 남아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은행원으로 살 때나 수도자로 살아오면서, 변함없이 지켜온 삶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물었다.

**박종인 신부** : 제가 성무일도 독서를 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아마 은행원 생활에서 정확한 것이 몸에 배인 듯해. 아마 수사님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982년 8월에 이스라엘의 우리 가르멜 수도원에 갔을 때, 노(老) 신부님께 어떻게 하면 전례를 잘할 수 있는지 여쭙봤더니, “나도 이 나이가 되어도 아직도 틀릴 때가 있다. 실수하는 게 인간이지만 당황하지 말고 태연하게 고쳐서 잘 하면 된다.” 고 하셨어요. 크게 도움이 됐어요.

**내레이션** : 자신에게만큼은 늘 엄격했던 수도생활, 오직 천국에 들어서기 위한 영혼구원의 길이라 생각했기에 행복했다. 수도원 입회 전에 수도생활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리의 생활이냐? 남남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고뇌한 적이 있었다. 남남끼리 서로 품어줄 수 있는 형제적 사랑, 어땠을까?

**박종인 신부** : 소화 데레사 성녀께서는 공동생활이 십자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저 역시 다른 사람이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거든. 성녀께서는 또, “저는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면서 대신 해주시면 모를까, 제 힘만으로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대데레사 성녀께서는 ‘참다운 사랑은 그 사람이 하느님 앞에 가서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다.’ (완덕의 길 6~7장) 그러셨어요. 은총의 결과는 마음이 넓어지는 건데, 그것을 얻는 방법은 기도와 성사이지요.

**내레이션** : 그렇다. 노(老) 수사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자신의 영혼구원을 통해 확장되는 세상의 영혼구원과도 맥이 달아 있었다.

**박종인 신부** : 대데레사 성녀께서는 처음엔 당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수도원에 입회하셨는데, 나중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생각할 때, 영혼의 아픔이 산산조각 가루가 되도록 아프다고 하시면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야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하셨어요.

#### 4. 하느님 뵈기만을 갈망하며 일구어온 관상생활.

**내레이션** : 천국에 들기 위한 영혼구원의 길, 무엇이 그의 여정을 지탱해 주었을까?

**박종인 신부** :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우리의 보화이시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힘썼습니다. 이것이 내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자서전 4,7) 그리고



‘임금 계신 곳이 궁궐이라면 하느님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는 여러 곳에서 하느님을 찾다가 결국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고요 속에 나를 두고, 내 안에서 당신을 보면 그만인 것입니다.’ (완덕의 길 28장) 라고 하셨듯이 내 안에 계신 하느님과의 합일, 그래서 만나는 게 중요해요. 또 이 세상에서부터 영적약혼과 결혼이 가능하다. 하느님과의 합일과 일치하는 오직 기도 밖에 없다고 했어요.

**내레이션** : 열편 강의를 하시듯 성녀의 가르침과 자신의 기도 방법을 알려주신 신부님, 그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지금도 큰 장례 자세를 고수하며, 여든 셋의 노구를 곳곳이 세워 기도하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말이다.

**박종인 신부** :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만 골똥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느님을 보고만 있으라는 것뿐입니다.’ (완덕의 길 26.3) 이게 능동적 관상이죠. 주님께서는 또, ‘나는 원한다. 단 15분 동안만 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 달라.’ 고 하셨어요. 그거 외엔 더 이상 바라지 않으신다고.

**내레이션** : 성녀의 저서에 녹아난 가르침들이 노 수사의 입에서, 그리고 가슴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동하고 있었다. 이렇듯 기도 속에서 하느님을 뵈고, 주님의 인성을 만나 사랑하며 수도생활의 행복을 맛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성모님과의 교감은 어떻게 이뤄가고 계실까? 그 옛날, 성소의 위기가 왔을 때, “애는 세속이나 결혼이 아닙니다.” 하고 막아주신 성모님, 그분과 말이다.

**박종인 신부** : 저는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성모님과 친숙한 관계가 형성된 것 같아요. 가르멜산 성모님께 봉헌된 수도회에

들어온 기념으로, 제가 특별히 봉헌할 것은 없고, 묵주기도 5단을 매일 바치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세례받던 1964년도 10월 4일, 서강대 성모회에 가입했었는데, 성모님과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어요.

**내레이션** : 노 수사님은 요즘, 강의 준비가 한창이시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영성 특강을 하신단다.

**박종인 신부** : 일반 신자들 대상이니까 신앙인의 기초를 닦아드리면서 가르멜 영성과 묵상기도로 하느님과 만나는 길, 기도 방법. 그런 것을 대중적으로 쉽게 강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박지현** : 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신부님은 아직도 자연인이시라고. 컴퓨터도 일절 안 하시고, 카톡은 물론, 휴대폰 문자도 적어보신 적이 없던데, 정말이세요?

**박종인 신부** : 해본 적이 없어. 문자가 와도 보기만 하지 보내본 적이 없네. 수도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아예 안 했어요. 재속회원들도 기도하려면 세속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 나아가야 해요. 그런 거 집착하다보면 아무래도 유혹이 많겠지.

**내레이션** : 휴대폰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내 생활이 성찰되었다. 속세를 떠난 듯 고요히 살아가는 수도자의 생활이 거울을 보듯 비춰진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신부님께서 안수를 해주셨다. 가끔 월 모임 때, 신부님이 오시면 회원들이 아이처럼 달려가 줄을 서던 장면이... . 왠지 나도 달려가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 마음은 또 뭐였던지.



**박종인 신부** : 내가 안수를 해주는 건, 성령기도에서 해주는 그런 것과는 좀 달라. 이나시오 성인께서 그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신자들의 복을 빌어주는 강복의 개념이지.

**내레이션** : 어느새 어둑해진 수도원. 소성당 앞에 신발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묵상기도 시간인가보다. 발소리가 날까 까치 발로 서서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차가웠다.

**박종인 신부** : (따라나서며) 조심해서 올라가요.

## 5. 에필로그

**내레이션** : 그만 들어가시래도 극구 마당에서서 배웅하신다. 나는 출발했고 노 수사님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다. 가르멜산 정원의 캄캄한 밤! '임금 계신 곳이 궁궐이라면 하느님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라고 하신 그 하늘로 말이다. 하느님 뵈기만을 갈망하며 천국을 사모해온 수도자, 그는 지상에서 이미 지복의 은총을 누리며,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구원의 소명을 다했다. 1977년, 신학교 4학년 때부터 45년 동안 입어온 갈색 수도복은 남아 빛이 바랬다. 그 안엔 그가 살고자 했고, 하느님이 진정 원하셨던 참된 진리의 생활이 배어 있었다.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그분을 만나 뵈던 날, 내 구원이 거기에 있었다.(끝)



새 신부님(1982년)



종신서원(1982년 3월 19일 로마 테레시아눔)



브루노 신부님, 마리요한 신부님 종신서원 기념(로마)



유학을 가는 정순택 베드로 신부님 배웅



대전 재속회원 종신서약식 기념



\* 공동체 이야기 \*

## 앞산 자락 아래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대구 앞산 자락 아래, 대구 가르멜 여자 수도원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는 1976년 6월 22일 대구 가르멜 여자 수도원의 작은 방에서 정대식 플로리아노 지도 신부님을 모시고, 15명의 회원이 모여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77년 3월에 첫 단순서약, 1980년 14명의 종신서약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1993년에는 재속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원수가 증가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운영하기에는 인원이 많아서 2000년 3월 가르멜산 성모,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예수의 성녀 데레사 4개의 단위 공동체로 나누어지고, 협의회가 결성되었습니다. 2000년 6월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2015년 10월 대구 재속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2016년 8월 첫 은경축 행사를 하였고, 이후 매년 은경축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는 재속회관 건립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 가르멜 여자 수도원에서 공동체 모

임을 하던 중 회원 수가 늘어나게 되자, 재속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정대식 플로리아노 지도 신부님께서 대구 가르멜 여자 수도원 땅의 일부를 재속회관 건립 부지로 사용토록 중간에서 주선해 주시고, 건축 설계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봉사하신 전임 회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대구대교구 주보에 재속회원 모집 공고를 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신 분들 모두 건립 기금 신립을 약정해 주셨고, 모든 회원들이 물건 판매도 많이 하였습니다. 새벽 3시에 모여 마산에서 오는 미역을 받아서, 각 구역으로 할당하여 판매하였고, 남은 미역은 시장에 나가서 팔았던 열정의 시기였습니다. 추석 명절에 받은 생필품조차도 회원들이 다시 월모임 때 가져와서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속회관 건립 당시에는 바닥에 앉아서 모임을 하였는데, 시장에 가서 갈색천을 구입하여 방석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철주야로 회관 건립을 위해 많은 선배 회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과 앞서 살아오신 선배 회원님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세워진 재속회관에서 오늘도 편안하게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매월 넷째 주일에 월모임을 합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포항, 김천, 구미, 경주, 경산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현재 단독회원이 34명이고, 71명의 회원이 월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7~8명으로 구성된 9개의 구역이 있으며, 공동체 소식지 <광야>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에는 연피정을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2박 3일 숙박 피정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티 피정의 집, 포항 갈평 피정의 집, 베네딕도 영성관에서 피정을 하였습니다. 숙박 피정을 하게 되면 준비할 것도 많지만, 회원들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과 떨어진 고요한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4월 연피정 마지막 날에는 종신서약식이 있습니다. 종신서약한 회원들은 대구 가르멜 수녀님께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수녀원 담장과 맞대어 재속회관이 있기에 수녀원과 통하는 문을 열면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화관을 쓰고 흰 망토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가는 종신서약자들의 뒷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수녀원 마당에 아름답게 핀 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종신서약자들

도 가르멜 정원의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가르멜 수녀님께 인사드리러 가면, 수녀님들께서는 가르멜 한 가족으로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격자 창살 사이로 수녀님들과 마주하지만, 수녀님들의 맑고 고운 얼굴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매년 9월에는 야외 월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방문한 곳을 정리해 보면 상주 가르멜 여자 수도원, 밀양 가르멜 여자 수도원, 광주 가르멜 수도원, 성주 가르멜 수도원입니다. 매월 월모임을 하는 재속회관에서 벗어나 가르멜 수도자가 계신 수도원에서 갖는 시간은 너무 짧아서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도자들과 함께한 미사는 너무나 소중한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탁 트인 곳에서 야외 월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야외 월모임때는 점심식사를 구역별로 준비합니다. 회원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풍성한 잔치가 됩니다. 그리고 구역별 장기자랑도 합니다. 의상과 소품 등을 준비하고, 이날 만큼은 자신을 내려놓고 흥겨운 친교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2018. 4. 22. 연피정(베네딕도 영성관)



10월에는 은경축 행사를 합니다. 2016년 첫 은경축 회원이 생긴 이래로 매년 은경축을 맞으시는 회원이 계십니다. 은경축 행사를 위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각 구역에서는 축하공연 준비에도 정성을 다 합니다. 올해는 네 분의 은경 서약 갱신 예식이 있었습니다. 서약 25주년의 의미가 되새기고, 각자의 삶도 되돌아보게 되며, 공동체의 사랑과 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12월에는 송년 친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담아 회원 전체가 각자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역사가 오래된 까닭에 단독회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 년에 한번씩 단독회원의 날을 정하여 단독회원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 대접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독회원님을 뵈 때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르멜 재속회원으로서의 삶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모든 분들마다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모습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단독회원은 각 구역마다 배정되어 구역장들이 안부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단독회원님들을 예전처럼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지난 5월에는 요양원에 계시는 단독회원님을 위해 여러 가지 죽을 만들어 회장, 구역장, 부구역장이 방문하여 좋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대구에서 유일한 직장팀이라 부부 회원이 많습니다. 회원 가운데 남자 형제 회원이 11%나 차지하고 있어,

공동체에 많은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인원이 적절하여 야외 모임이나 피정, 행사 진행이 용이하며, 회원 전체가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어서 공동체 적응을 잘하며, 기도 생활도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회원 간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 나눔 실천을 잘하고 있으며, 공동체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월모임, 구역모임을 하지는 못하지만, 축소된 형태의 월모임, 비대면 구역모임, 양성교육을 통하여 가르멜 영성을 익히고 배우며,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는 이 시기에도 저희 공동체에는 많은 지원자가 모집되어 발전 가능성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찬미 영광 받으소서!

“기도생활로 접어든 사람이 가져야 할 열망의 전부는 있는 정성을 다하여서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로 노력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의 성」 제2궁방8)



2018.11 단독회원 만남의 날



\* 하느님의 포도밭 일기 \*

## 아주 평범한 1박 2일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어제 목요일 밤에 예쁜 여자아기가 태어났어. 아주 건강하단다. 산통도 30분 정도밖에 겪지 않았어. 내일 토요일엔 유아세례를 받기로 했단다. 대모는 우리 큰 딸 마리가 맡게 될 거야.” (『성녀 소화데레사 자서전』 p.23)

1873년 1월 2일. 한 아이가 태어났다. 금발머리에 푸른 눈, 아주 예쁘고 상냥한 아이, 영리하고 발랄하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끔은 크게 화낼 줄도 알고 의지가 강하고 섬세한 아이. 이만하면 눈치챘을 터다. 프랑스 알랑송에서 루이 마르탱과 젤리 게랭의 아홉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난 데레사, 바로 소화 데레사 성녀다. 내년 1월 2일이면 그녀가 태어난 지 150주년이 된다. 하여, 작은 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소화 데레사와 부모이신 루이와 젤리의 유해가 안치된 목포 가톨릭 성지 산정동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데레사가 태어난 1월 2일에, 큰딸과 함께 말이다. 딸은 2014년 9월에, 나는 2019년 9월, 산티아고 순례를 앞두고, 성녀가 살았던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특별한 추억이 있어서인지 엄마의 뜬금 없는 초대에 응했던 딸. 다만, 성지에서의 미사 외 나머지 스케줄은 자기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일침이 있었다. 엄마와의 여행을 기뻐할 딸들이 얼마나 될까만, ‘간다는 게 어디야?’ 하는 마음이 들어서, 흔쾌히 그러마 하고는 딸에게 일임했다. 일대결심도 했다. 내 영적인 생각은 내려

놓고 알콩달콩, 인간적인 기쁨과 재미를 누리려 봐야겠다. 오직 딸에게만 집중하며 엄마로서 못다 한 사랑을 듬뿍 부어주겠다는 각오였다. 목포 산정동 성당, 말로만 듣던 성녀와 부모님의 유해가 제대 양옆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 배경은 이러했다. 광주대교구 김희중 주교님께서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에 방문하셔서 미사를 봉헌하셨는데, 이를 고마워하신 수녀님들께서 유해를 기증해주신 거란다. 성 루이와 젤리의 유해가 한국 교회에 안치된 것은 최초가 아닐까 한다.

미사 후, 부부이며 부모이신 루이와 젤리의 유해 앞에 머물렀다. 한 함에 나란히 안치한 유해 두 점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아홉 자녀를 낳아 기르시며 넋은 하늘나라에 보내고 다섯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 수도자의 길로 인도한 두 분의 노고에 가슴이 뭉클했다.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의 본보기로서 일상의 작은 것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성화시키며 성인이 되셨다. 엄마의 마음, 아내의 마음! 두 마음이 공감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게다.

이때 불현듯 뇌리에 스친 어떤 욕망, ‘여기까지 왔는데 묵주기도 5단을 바치거나, 유해 앞에서 묵상하며 찼하게 기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맘 어딘가에서 ‘이왕이면!’ 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온 거다. 그 순간, 전날에 했던 일대결심이 떠올라 고개를 저으며, ‘안 돼, 오늘은 온전히 큰 딸만을 위한 날이야. 언



다 대고 유혹이야.’라며 생각을 펼쳐냈다. “딸, 나 배고프다. 얼른 맛집으로 안내하거라.” 차갑지만 햇살이 따듯했던 날, 목포역까지 걸었다.

생선 백반집. 구운 생선을 발라주며 맛나게 먹는 딸을 보니 맘이 따듯했다. 평소 말이 없고 표현을 아끼는 편이라 무심한 듯 보이던 딸은 어디 가고, 살갑고 친절하고 친밀한 딸이 새로 나타난 듯 다른 모습이었다.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닐 터. 맘은 있으나 껍스럽거나 표현해 본 적이 없어 맘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이런 작은 시간들이 모녀 사이의 벽을 허물어주었다. 유달산 가까운 곳에 복고풍 카페가 있었다. 전축 판이 돌아가듯 근대 시대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고가구가 멋스러운 곳. 모녀는 서로 사진을 찍어주었다. “웃어봐. 옆으로 조금만 더. 일어나봐. 치아 보이게 크게 웃으란 말이야.” 혼신의 힘을 다해 앵글을 잡으려 고군분투했던 나, 이번 여행을 망치면 앞으로 내 인생에 딸과의 여행은 없다. 둘이 팔짱을 끼고 목포역 주변을 걷다 보니, 생각나는 곳이 있었다. “여기 웬지 건물들이 다 야트막하고 시골스러운 게 꼭 리지외 같지 않니? 너무 평화롭고 좋다.” 딸도 그런 것 같다며 맛장구를 쳐 주었다.

유달산 케이블카. 고소공포증과 과한 상상력 때문에 다리가 저릿저릿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에서 둘은 손을 꼭 잡고 세상 다정한 척, 밀착되었다. 따스한 체온, 서로의 숨결, 이런 행복이 그리웠다. 고하도 섬에서 시간을 보낸 후, 돌아오는 길에 중간 유달산 선착장에 내려 일몰을 보기로 했다. 유달산 정상까지 오르려면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엄마, 여기 건물 옥상 전망대에서 일몰 봐도 된다는데?” 엘리베이터가 앞에 있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이면...’이라는 욕망이 발동했다. 기어이 계단을 오른 모녀, 숨을 몰아쉬며 올라갔건만, 해는 이미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래도 유달산 정상에 올랐으니 후회는 없다고 합리화를 하며 딸에게 물었다.

“네 말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옥상으로 올라갔으면 쉽고 편하게 일몰을 봤을 텐데. 너는 계단을 오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 딸이 말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일몰을 보는 그 순간을 즐기면 되는 건데...”

바로 이거다. 관점의 차이. 엄마의 신념, ‘이왕이면 조금 더!’와 딸의 신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다름의 차이, 얼마 전 딸이 병원 진료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자판기에서 코코아를 뽑는데 옆에서 머리에 두건을 쓴 항암 환자가 코코아 잔을 쳐다보기에, 먹고 싶어 하나? 하는 생각에 얼른 권해드리니, 사양도 안 하시고 받으시더라. 드시고 싶었던 모양이라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그게 사랑이지. 어떻게 그런 맘을 먹었을까?’

거기서 끝냈으면 더 근사했을 것을. “딸, 감동이다. 나 울컥했어. 그런데 그분, 항암 하느라 힘드실 텐데, 이왕이면 네 가방에 있는 소화 데레사 성녀께 드리는 9일 기도 책 드리면 어때? 큰 도움이 되실 텐데.” 되돌아온 딸의 말은 이랬다. “엄마, 굳이 뭘 그래. 그분 이미 병실로 가셨어.” 유달산 케이블카 안에서 지금과 비슷했던 일이 떠올라, 그때 엄마의 제안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물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코코아를 드린 그 순간이 중요하지. 그분도 나도 그 순간에 너무 좋고 따듯했거든. 그럼 된 거 아냐?”



맞다. 너의 그 작은 사랑, 그 순간을 충분히 누리며 즐기는 행복. 그게 바로 소화 데레사 성녀의 작은 길, 엘리베이터 영성 이란다. “네 말대로 유달산 선착장에서 곧장 옥상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야 했어. 아니 일몰 풍경은 이미 케이블카 안에서 충분히 누렸거든. 네가 나보다 낫다. 성녀의 영성을 더 잘 살아내고 있구나. 네가 나의 스승이야.”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기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일 터.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애써보는 거야!’ 라는 신념이 우리를 더 올라가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한다. 성녀의 탄생일인 1월 2일, 소화 데레사와 마르탱 부부가 내게 선물한 것이 있다면, ‘이왕이면!’ 이라는 신념 때문에 나와 가족을 버겁게 했던 지난날의 회심과, 굳이 그렇게까지 애쓰며 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딸의 가르침. 그리고 리지외를 담은 목포역 앞, 작은 도시에서의 추억이었다.

만일, 산정동 성당 유해 앞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서 수다 떨고, 팔짱 끼고 여유 있게 걸으며 서로에게 집중할 수 없었을 거다. 아무리 좋은 영적 갈망이라 해도 상대가 원하는 것이 나와 다르다면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더 특별하지 않아도 그날 우리는 서로의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누렸어야 할 평범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다. 너무 치열하고 분주하게 살면서 놓치고 잃어버렸던 상실의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우리 모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평범한 일상, 같이 맛집

가고, 사진 찍어주고, 케이블카 타고, 함께 걸으며 알콩달콩, 엄마와 딸의 유대감을 쌓아가는 것, 그것을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것이다. 각자의 신념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집중하며 함께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존’이라는 행복감을 맛보게 된다. 이제는 우리 딸이, 엄마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이왕이면 조금 더 애써보는 거야.’ 라는 목소리에 지배받지 않고, 자기 역량에 맞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에 만족하며,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소화 데레사도 그랬고, 부모이신 루이와 젤리 부부의 삶도 그랬듯이 일상의 작은 길을 걸으며 자기답게 오르고 성장하는 삶이기를. 왜냐하면, 예수님의 팔인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기쁘게 오르게 할 테니 말이다.

150년 전에 태어났던 아이, 아빠 루이 마르탱이 쓴 짧은 시가 있다.

‘환하게 미소 지으렴. 얼른 자라나렴. 정성스러운 보살핌, 따뜻한 사랑, 모든 게 너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거야. 그래, 새벽빛을 향해 미소 지으렴. 방금 피어난 꽃봉오리여, 넌 언젠가 장미꽃으로 피어나겠지.’

내 소중한 딸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다.

“그래, 딸. 너만의 꽃, 너다운 꽃을 맘껏 피워내렴. 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야. 삶의 순간들을 즐기렴. 그 순간이 바로 영원과 닿아있단다.”

아주 평범했던 1박 2일, 딸과의 첫 여행은 대성공이었다.

“엄마, 여수 향일암이 좋던데, 같이 갈까?” \*



\* 회원의 글 \*

## 단란한 하루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밤비 그치고 초목에 반짝이는 보석들이 눈부시다. 맑은 빗방울 모아 영혼을 세수하는 비 개인 아침, 창가에 어리는 다소곳한 설강화(Snowdrop)의 자태가 고요하다. 이따금 새들이 찾아와 쉬었다가는 작은 뜰은 세상의 번고와 아무 상관없이 평화롭기만 하다.

누구의 전언이런가, 올 때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다는 꼬마 손님의 기척에 서둘러 마중 나가는 우리 식구들이다. 돌이 막 지난 즈음에 창궐한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일 년 만에 만나 났을 가리며 울먹이던 녀석이 이젠 눈만 뜨면 할머니 집에 간다고 나선단다. 백신 주사를 맞은 이후론 토요일 저녁마다 두 시간씩 이모들이랑 놀다가는 재미에 흠뻑 빠졌다. 이 넓은 세상에 만나는 이라고는 엄마 아빠뿐인데, 그나마 재택근무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 부모와 아이 모두 고생이다. 몇 날 며칠 옮겨가며 어렵사리 적응된 유아원도 긴 방학 끝에 다시 개원하였다. 하지만, 다시 나오는 원아 다섯 명 중 남자아이는 외손자 루카스 혼자란다. 이제 겨우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어린것이 친구가 없어 슬프다는 토막말에 안쓰럽기 그지없다.

연휴를 맞은 방학엔 이른 아침부터 외갓집으로 나들이를 왔다. 이슬비 사이로 “바이~” 엄마에게 작별 인사하는 루카스의 몸짓이 가뻐다. 아이스크림 장난감 세트로 소꿉장난을 하던 아이의 눈에 기쁨이 가득 차오른다. 창밖 꽃밭을 가리키며 자

꾸 무어라 말을 한다. “나비, 나비!” 전혀 뜻밖의 말이라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다. 문득 어제 막둥이가 가르쳐 주었다는 두 단어 ‘나비, 꿈’ 우리말이 떠올랐다. 참 신기한 일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겐 한국어로 말을 한다. 그리고 말 끝엔 꼭 상대방 이름이나 호칭을 붙인다. 아직은 ‘할머니’를 발음하기 어려운지 그랜마(Grandma)라고 부른다.

아기는 이제 졸음이 오나 보다. 눈을 비비며 “엄마 어딴어?”, “아빠 어딴어?” 연거푸 물어본다. 코 자고 나면 아빠가 데리러 온다 하니 “아니 아니 아니야~” 잠을 안 자겠다고 울음을 터뜨린다. 동화책을 읽자 해도 자장가를 불러주어도 “엄마, 엄마~”를 부르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운다. 잠 이야기만 나오면 집에 간다고 울먹이는 루카스, 엄마 품이 그리워 울며 잠이 든 아기는 잠결에도 흐느낀다. 잘 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딸아이에게 영상으로 보고를 한다. ‘엄마, 아빠’를 찾는 동영상을 본 딸은 놀라워한다. 집에서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아기가 졸음에 겨워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울다니, 가슴 찡한 울림이요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다.

어둠이 내리고 잠에서 깨어난 아기는 언제 잠투정을 했냐는 듯 기분 좋게 일어난다. 언젠가 지인이 할아버지의 유품이라며 호두알 두 개를 꺼내 ‘손주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품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던



일이 떠오른다. 담소를 나누던 친구들은 진지하게 생각에 잠기고, 난 망설임 없이 <책과 거문고>라 답을 했다. 책장을 붙들고 가까스로 걸음마를 옮기던 아기가 책을 쓰다듬으며 좋아하던 그 순간, 내 마음엔 절로 그러한 바람이 자리하고 있었나 보다. 한글을 가르쳐 책을 물려주면 좋으리라는. 작은 칠판에 루 · 카 · 스 · 이름 쓰는 연습을 한다. 손을 잡아 도와 달라며 그림을 그리듯 한글 공부 삼매경이다.

먼 산엔 흰 눈이 쌓이고 어느덧 청매 가지엔 보일 듯 말 듯 꽃망울이 맺혔다. 거목을 쓰러뜨리며 폭풍우가 지나가고, 한낮엔 땀방울이 쏟아지는 변화무쌍한 날이다. 하루에도 사계(四季)가 공존하는 낯선 타국의 사막지대에서 우리의 인생살이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돌아본다. 갈수록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화목한 가정에서 평온하게 자랄 수 있기를 청하며, 아기 예수님께 촛불 밝혀 루카스와 함께 기도드린다. 아기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신 요셉 성인께 보호를 청하는 원의를 담은 외손자의 정식 이름은 '요셉 루카스' 이다. 겸손하고 충실하신 요셉 성인을 닮기를 의탁드리며, 날로 지혜와 은총이 자라 주보성인이신 루카 복음사가처럼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시라는 바람도 봉헌드린다.

다정하게 “기도! 그랜마~” 를 부르며 눈 맞춤을 하는 루카스와 처음으로 저녁 성무일도를 소리 내어 바친다. 아기는 수줍게 웃으며 곧잘 “아멘!” 두 손 모아 따라 한다. 훗날, 루카스가 자라 남은 성무일도를 보며 외할머니의 유품을 기억하려는지. 한없이 안온한 고요에 잠겨 단란한 하루도 잠이 든다.

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꽃의 기도는  
곱고 아름다운 빛깔처럼 예쁘다  
꽃이 드리는 기도는  
그들의 향기가 분향이 되어 향기롭다

·  
·  
·

꽃은 행복하다  
하늘을 향해  
늘 기도하기 때문이다.

-장석훈 소년 예수의 베르나르도 신부님,  
<기도하는 꽃> 중에서





\* 회원의 글 \*

## 차를 놓치고

반숙자 (성 요셉의 벨라뎃다) /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성당에서 차를 운행합니다. 우리 아파트 뒤뜰로 성당에서 보내주는 스타렉스가 10시 15분에 도착합니다.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서 준비하고 10분에 나갔습니다. 늘 거기서 기다리는 자매님 두 분이 보이지 않고 차도 없습니다. 어쩐 일이지? 내 시계가 틀리나 싶어 폰을 꺼내 보니 12분입니다. 낭패입니다.

‘뭐야, 시간은 아직 3분 남았는데’ 구시렁거리며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11시 미사니까 지금부터 걸어가면 충분할 거라 생각은 하지만 아득합니다. 공연히 부아가 납니다. 부아 김에 차량 봉사자 형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기가 무섭게 “차 떠났어요.” 한 마디입니다. 알겠다고 해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같으면 집에서 성당까지 15분이면 가던 걸음이 이제는 배로 잡아도 모자라고 허리와 다리가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알겠다고 해놓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차선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가 저녁 6시 TV 평화방송 미사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성체를 영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근 2개월간 성당 미사가 없을 때 집에서 미사를 드리며 신령성체 기도를 드릴 때면 눈물이 납니다. 내 입으로 모셔야 진짜로 오시는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고대하던 미사가 재

개되고 부랴부랴 성당에 갔습니다. 그날의 행복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날의 기쁨이 되살아나자 미사에 죽어도 가야 한다는 결의가 생깁니다. 늦지 않으려고 급하게 신발을 신는 순간 폰이 부르르 떨립니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갈 테니 나와서 기다리세요.” 반가운 문자입니다. 문자를 보고 또 보며 열두 사람 타는 승용차에 마지막으로 타고 성당으로 가면서 시간을 어긴 것이 내가 아니라 차량 봉사자라고 투덜대던 입이 함구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아흔아홉 마리 양 떼를 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이신 주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마라나 타.

요즘 약속에 대해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선배님과 만날 때입니다. 내일 12시 아파트 옆문에서 만나자는 문자를 받고 당일 그 시각에 나가면 왜 이렇게 늦냐고 타박을 듣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긴 것은 선배님인데 타박은 내가 들어야 하나 속으로 투덜대지만 연세가 높은 분께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차량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 시각에 도착했으면 아무 일 없이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려 생각해 보면 내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차량을 이용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동력이 없는 것을 아는 대너네가 자기들 성



당에 가는 날 함께해주기 때문에 불편 없이 다녔습니다. 어찌다가 대녀네가 일이 생겨 가지 못할 때만 성당 차량을 이용했기에 안 보이니 무심히 떠났을 것입니다. 개인 승용차도 아니고 읍내만 다니지 않고 변두리 시골까지 달려가서 노인 신자들을 모시고 오는 봉사자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더구나 노인들은 할 말이 많거든요. 조그만 일에도 서운해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자니 봉사자의 일요일은 주일이 아니고 고된 노동일입니다.

저녁에 일기를 쓰다가 선배님 생각이 났머리를 쳤습니다. 늘 혼자서 집에만 있다가 모처럼 외출 약속을 했으니 얼마나 설레며 기다리셨을까요? 맛난 것도 먹고 콧바람도 쏘일 기쁨에 기다리는 시간이 여삼추 같으셨을 테지요. 아침 일찍부터 시계만 바라보다가 더 참을 수 없어 10분 전에 나왔는데 후배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속에서 울화통이 끓었을 것입니다. 어린애라면 쥐어박고도 싶으셨을 겁니다. 그 심

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앞세운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목석이지요. 이렇게 변해도 되나요?

가르멜인은 영성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성 생활은 생활과 거리를 두는 일이 아니고 도리어 현실에 몰두하는 일이다. 하느님은 단순한 논리적 사고에서보다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목에 걸려 문자를 넣었어요. “봉사자님, 오늘 두 번씩이나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다려 주신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봉사자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떠난 스타렉스는 되돌아와 길 잃은 양을 태워 갔지만 떠난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건지...

주님, 큰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매일 만나는 이웃들이 저로 하여 작은 기쁨을 느끼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체를 모신 제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지요? \*

## 보물찾기

현재의 실존적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여 있지 않은 영혼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실현될 수 없는 미래를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에서 멀리 달아나 환상세계를 가공하면서 허구의 세상을 꿈꾸는 미성숙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추상적으로 환치된 과거와 미래는 실재하지 않으며 영원한 현존이신 하느님의 빛과 사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온전히 현존하는 영혼에게만 당신의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개여 있는 영혼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 김광서 삼위일체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 회원의 글 \*

## 귀한 한마디 말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 마지막 엿새날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으셨다며 몇 번씩이나 좋았음을 강조하신다.

이렇듯 주님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최고 중의 최고, 진선미(眞善美)를 모두 갖추신 말씀이다.

이렇게 으뜸 되는 한마디의 말을 할 수도 또 그 한마디의 말로 잊지 못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지난 일이고 이제는 말할 수가 있는 슬픈 일이 나에게도 하나 있다.

15년 전 따뜻한 봄날, 띠 동갑 동창들과 환갑 기념으로 7박 8일 동유럽 여행길에 나섰다. 비교적 긴 일정이라서 다 빠지고 2명만이 동참. 숙소도 그렇고 짝수로 움직이는 것은 여행의 기본이라 틈을 낸 내 남편과 모두 4명이 일행이 되었다. 유럽의 심장 체코의 수도 프라하, 헝가리, 폴란드, 독일 등 거의 모든 나라는 가톨릭 국가이기에 성지순례나 진배없었다.

원래는 서유럽인 프랑스, 이태리와 스페인 등을 먼저 여행했어야 함에도 친구 따라 강남으로 떠났다. 아마도 체코의 프라하 공항으로 도착하고 움직였던 것 같다.

인접한 다른 국가로 가는 비행기 편이 비교적 많다는 일명 비행기 터미널이다.

이곳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 웅장하고 섬세하며 아름다운 성 비투스 대성당은 하이라이트였다. 까를교에서는 야경을 즐기며 부지런히 걸었고, 우리의 5일장 비슷한 프라하 시장에서 과일을 샀고, 유명하다는 스타벅스 커피도 즐기고. 다뉴브 강에서는 유람선도 타고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에 춤추는 백조도 만나 본다.

독일의 라인 강변을 따라 고만고만하게 아우러진 주택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설계가 달라야 허가가 난다 한다. 영화에서 본 듯 창문에 예쁜 꽃 화분을 진열하고 골목골목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일본도 몇 번 가보았지만 허름한 목조주택의 창이 부서지고 깨어져 있을지라도 앞마당도, 공공장소인 거리에도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깔끔한 독일에서 일본의 알뜰한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몹시도 부지런한 두 나라는 자신들의 국토가 좁다고 생각하고 넘치는 에너지로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일삼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어찌했든 남편과 동행한 나는 행복했다.

외국 여행은 계획된 틀에서 조금 벗어나는 일정이 생기면 옵션이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선택을 하기는 한다. 그런데 갑자기 산악열차(?)를 탈 기회가 있다며 가이드가 제안을 했다. 현금은 많이 소



지하면 쓸데없는 물건들을 사기에 조금만 가지고 떠난다 하니 동남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작은 아들이 필요할 때 쓰라고 큰맘으로 카드를 주었다. 그 카드를 쓴다 하니 가이드가 알려준다. 유럽에서는 본인 것이 아닌 카드를 쓸 경우에는 말없이 무조건 경찰을 부른다. 자신이 대납을 할 터이니 서울에 돌아가서 갚으란다. 바로 그날, 문제의 그 친구가 남편과 내가 지나가는 옆을 바짝 지나며 아주 작은 소리로 국제㉠㉡하며 재빠르게 지나친다. 나만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작은 소리였다. 깜짝 놀란 나는 황당하고 급작스러운 일이라 기분이 나쁠 틈도 없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만만했을까. 한마디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여행 후 함께 못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야 분하고 화가 났었다. “그 친구는 강박증이 심해서 남편이 먹던 소주병을 경비아저씨들이 보면 창피하다고 가루를 만들어 버린단다. 네가 이해하렴. 다른 일도 잘 참지 않았니. 개는 점쟁이가 자기는 바른말을 잘하는 성격을 타고 났다고 이야기했단다.” 하며 마무리해 주었다. 아, 위대한 점쟁이여!

나의 4도 화상 같은 쉽게 아물지 않은 상처는 성나고 물질도 터졌으니 그 아이를 모르는 고교 동창에게 말해 버렸다. “그 애가 아마도 너하고 생활환경을 비교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았을 거다. 너는 강남에는 안 살지만 자존감이 높지 않니. 더구나 핸섬하고 스마트한 남편을 동행했으니. 이혼한 저를 비교했겠지. 그런데 수입도 없이 어떻게 강남에서 사냐. 강남㉠㉡네. 애, 잊어버려.” 그 말 한마디에 위로받았던 나는 무엇이었나. 어디로 가고 있었나…………

요건 분명하게도 뒷담화였다. 물론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몰라야 하며 자기 자신도 잊어야 하는 일. 하물며 불편했던 일은 더더욱 조심조심. 그럼에도 3자에게까지 이야기한 어린 나는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 복을 짓기는커녕 겸손도 사랑도 놀라서 멀리 떠나버렸다.

기도할 때면 잡념처럼 이기적으로 미숙하게 쏟아냈던 말과 행동이 꼬리를 문다. 저잣거리보다도 더 시끄럽다. 하여 나의 주님께서는 시편 56편을 통하여 눈물을 당신 자루에 담으시어 모든 슬픔에 잠긴 영혼에게 두려움을 없이하여 주신다고 한다. 내 사랑 주님!!!

우리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서는 『가르멜의 산길』(영혼이 하느님과 친밀한 합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길을 표현한 최고의 영성서적)에서 나 자신을 끊고, 비우고, 나를 업수이 여기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주님께로 다가서는 길임을 가르치신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깨닫는다. 그 사건을 통하여 비움의 無(Nada)를 일러주시는 수동적인 기회였던 것을.

주님께서 주신 자리…. 은인의 자리에 그 친구를 세웠다면 나는 좀 더 곰삭을 수가 있었을 것을. 이렇게 남모르게 찾아왔던 정화(淨化)의 찬스는 시끄럽고도 조용히 나를 비껴갔다.\*



\* 순례기 \*

## 18일간의 숨바꼭질(9)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아우슈비츠 제 1수용소

제 2수용소에서 돌아와 다음 행선지를 향한 차 안에서 지도 신부님과 가이드 형제님 그리고 회원 간 잠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신부님이 버스 통로 가운데로 나오셨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제 1수용소도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생가를 가는 것입니다. 처음 계획 자체를 존중하는 원칙하에 1수용소 가는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사 제 1수용소에 가는 결정을 한다고 해도, 가이드 형제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곳은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제 2수용소에서 10km 떨어진 제 1수용소에 가기 위해서라면 이 근처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그곳에 갈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것이지요.”

제 1수용소에 가자는 의견이 과반수를 훌쩍 넘겨, 결국은 그 어둠이 너무 깊어서 아우슈비츠에서 빨리 헤어내고 싶은 사람, 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생가에 대한 여행 전의 기대가 컸던 사람들 등 몇 분의 양해를 받아 제 1수용소에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 2수용소 근처 밝고 깨끗한 식당에서 부드러운

육고기와 감자 요리로 점심 식사를 했다. 회원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푹 푹 던지듯 이어졌다. 수용소 근처 깨끗한 식당에서 한 끼 식사가 낯설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 탓이었다.

두 시간 넘게 기다릴 줄 알았던 대기 시간은 한 시간으로 단축되고 우리는 제 2수용소의 황량함과 거리가 먼 계획도시처럼 정돈된 붉은 벽돌 건물들이 즐비한 제 1수용소에 들어섰다. 입구에서 A4 용지보다 큰 가방은 반입 금지가 되고, 지니고 간 모든 가방 또한 하나하나 검열을 받았다. 이어폰도 그곳에서 지급한 것으로 사용해야 했다.

제 1수용소는 1940년에 지어서 소련 포로들이나 폴란드 정치범들을 수용해 왔다. 1942년부터는 유대인을 수용했고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지은 것이 한두 시간 전에 다녀온 제 2수용소다.

아우슈비츠 사진을 볼 때마다 등장하던 바로 그곳이 입구였다. ‘노동이 너희를



제 1수용소 전경



자유롭게 하리라' 고 적어진 철제 돔 형식의 입구다.

아우슈비츠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제목의 이탈리아 영화가 있다. 그때 보았던 배경 속의 건물들이라 눈에 익숙하였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줄거리에 많은 사람들은 저것이 실화이기를 바라는 맘이 간절했고, 그에 맞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던 영화.

게임처럼 자유가 찾아왔고 그제야 아빠가 말하는 게임의 끝이 드디어 왔구나! 어린 소년은 그렇게 사지에서 목숨을 구하는데, 세월이 이렇게 흐른 뒤에도 그런 기억들이 수천수만 건이었기를 바라는 염원이 간절하기에 사람들은 지금도 희망을 얘기하는 아우슈비츠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몰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몇 개 동을 옮겨 다니면서 가이드 형제님의 안내를 받고 움직였다. 사진에서 보았던 비 내리는 날에 찍었을 법한 축축한 이곳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오전의 구름 낀 하늘은 맑게 개어 날씨는 더웠다. 견학을 온 듯한 청소년들은 한 건물에서 쏟아져 나올 때마다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옆을 빠르게 지나갔다.



캠프 오케스트라 사진

제 2수용소에서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세워져 있는 비석 모양의 까만 구조물에는 당시를 찍었던 흑백 사진이 들어 있다. 지나가면서 본 사진 안에는 막사를 배경으로 서 있는 유대인 음악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관객으로 서 있는 나치 장교들, 의자에 앉아서 감상하고 있는 여인들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불현듯 흑백의 바그너 초상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곳에서 예술은, 그리고 음악은 무엇이 었을까? 자신의 고유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이유가 부여되는 예술이라는 정체성. 이곳에 수용된 유대인 예술가들에게 목숨 건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때로는 하나의 선택을 위해서 내 전 인격이 소요되기도 하고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삶이 통째로 었히기도 한다. 삶의 순간들마다 이루어지는 선택을 잘하기 위해 내 삶의 에너지는 소모되어야 한다. 나를 지탱해 주었던 내 안의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고 내 목숨 앞에서 무기력해졌을 때 한 개인에게 '예술'은 무엇이였을까? 가장 슬픈 사진 중의 하나였다.

사진 밑에 폴란드어와 영어로 표기된 설명에는 이 유대인 음악가 단체를 '캠프 오케스트라' 라고 했다고 한다. 수감된 이들이 일터로 향하거나 돌아오는 동안 이들은 여기에 모여 연주를 했다. 수감된 이들이 쉽 없이 견도록 부추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원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가이드 형제님이 안내하는 11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열쇠로 굳게 잠긴 1층 방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먼지가 뿌옇게 쌓인 맨바닥에는 당시 사용했던 낡은 이불들이 깔려 있고, 서로 엮혀서 잠든 뼈





만 앙상한 이들의 모습을 찍은 커다란 사진이 벽에 걸려 있다. 또 다른 방에는 겨우 한 사람 몸 뉘기에도 빠듯한 낡은 목조 삼층 침대, 그리고 가지런히 쌓아 올려놓은 빈 밥그릇이 텅 빈 방 안에 놓여 있다. 개인에게 하나씩 소유되었을 양식 그릇. 지상의 양식 주머니. 저기에 무성의하게 담겼을 그 무엇이 슬프다.

누구에게든 이렇게 소박하고 작은 밥그릇 하나로 세 끼 육의 허기짐을 채우면 족할 한 세월에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그다음 우리가 가서 맞닥뜨린 곳은 TV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보았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그 당시 이곳에 도착한 유대인들에게서 뺏은 소지품을 방마다 가득 쌓아 놓은 건물이었다. 실내 공기는 무겁고 습지고 메케하다. 그래서 숨이 막혔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 전시된 것들, 수만 개 수십만 개씩 산처럼 쌓여있는 안경, 신발, 밥그릇 등이 있는 유리로 칸막이가 된 커다란 전시실에 눈길을 오래 두지 못했고, 누구도 어떤 한 장면을 사진 찍지 않는다. 어떤 다른 행동을 애써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다. 머리카락으로 짠 직조물이라고 가이드 형제님이 설명하는 회색의 푸석한 천 앞에서 전율이 일었다. 모두 그 앞에서 깊은 탄식을 쏟아 내었다.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클베  
성인 초상

다음으로 우리가 가이드 형제님을 따라간 건물은 14동 콜베 성인이 돌아가신 건물이었다. 그곳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었다. 이상하게도 제 1수용소에 와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이 몸이 마비된 느낌이 들었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성인의 순교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과 영혼이 맑아지는 이야기. 성모님을 향한 사랑이 지극한 성인을 성모님은 성모 승천 대축일 전날 하늘로 데려가셨다.

“1918년 사제 서품을 받은 성인은 ‘성모 기사회’를 결성하고 동서양 곳곳을 돌며 평화운동을 하다가 1941년 나치 비밀경찰에게 체포됩니다. 그때가 이미 두 번째 체포된 것이고 성인은 1년 전에 100만 부 이상의 반나치 성향의 종교 잡지를 발행한 죄목으로 한 차례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체포된 이유는 성인이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심에서 설립하고 활동한 니에포칼라누프 수도원에 유대인과 전쟁 난민을 숨겨준 이유에서였습니다. 성인의 죄수 번호, 16670. 제 1수용소, 14A동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성인은 이름이 아난 이 번호로 불리었습니다. 수감된 지 2달 만에 희생됩니다.

성인은 감옥 안에서도 지치지 않고 목자의 역할을 한 탓으로 미움을 사 다른 수용



소인보다 더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그 고결한 한 영혼을 당신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고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마련해 놓으셨다. 죄수 중 한 명이 탈출한 사건으로 결국 성인은 아사방(餓死房)에 다른 수용자를 대신하여 갇히길 자처한다. 그곳은 벽돌로 된 ‘관(棺)’이라 해서 ‘벽돌관’이라 불렸다. 한 사람이 서 있거나 겨우 쭈그리고 앉을 공간에 세 명을 몰아넣었다,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그렇게 있어야 했다. 용변까지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는다. 콜베 성인에 의해 목숨을 건진 이는 프란치세크 가조우니체라는 폴란드 의용대 출신의 남자였다. 자칫 역사 속으로 묻힐 뻔한 콜베 성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 되었다.

탈출한 포로를 대신하여 희생될 10명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그가 폴란드어로 울부짖었다. 콜베 성인은 간수에게

“저 사람은 ‘나에게는 딸이 있고 나는 딸이 보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희생자가 되었다.

아사방에 갇힌 10명은 성인 덕분에 극단적인 고통 앞에서도 평안하게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한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성인은 결국 독극물 주입으로 순교하게 된다. 1982년 10월 10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를 순교자로서 시성하였다.

“그는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 즉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는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증오의 굴레를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악을 몰아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71년 추기경이었을 때 하셨던 말이다.

우리는 지하 아사 감옥, 일명 ‘14호’ 감옥으로 내려갔다. 내려가는 계단은 몹시 좁고 어두웠다. 감옥 한 군데의 벽을 터서 사람들이 그 넓이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했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기도 숨이 막힐 지경으로 좁았고 벽은 굉장히 두꺼웠다. 이런 곳에서 2주를 기도의 힘으로 버티셨다고 하니 예수님의 남은 잔을 채우는 거룩한 순교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성인의 축일인 8월 14일 성무일도 저녁기도는 마치 콜베 성인을 천상으로 이끌어 가시듯 성모님 승천 대축일 제 1저녁 기도로 연결된다.

독극물이 체내로 주입된 후 죽음을 맞이하는 성인을 본 브루노 보르고비에츠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막시밀리아노 신부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팔을 뻗었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신부는 벽에 기대앉아 눈을 뜨고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온화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마치 성모님께서 하느님 손 안에서 그렇게 되셨듯이 우리도 성모님 손 안에서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됩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모님의 지도를 받고, 성모님의 인도를 받아, 그분의 보호 밑에서 마음 놓고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성모님이 보살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며, 영육 간의 모든 어려움 중에 성모님이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것이며 어려움과 불안도 그분이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편지’, 성무일도 ‘독서기도’ 중)



붉은 벽돌 수용소 건물들의 사이를 건너 동을 옮길 때 건물 앞 커다란 바위 위에 놓여 있던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잊을 수 없다. 가져다 놓은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은 듯 장미는 아직도 싱싱했다. 이곳을 향한 먼 길을 오는 내내 한 송이 장미를 들고 왔을 그 마음이 귀했다.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화장터. 제 2수용소 화장터는 거의 파괴되어 본래의 형태를 어렵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이곳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독일이 폴란드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처형한 곳으로 시작된 제 1수용소.

123년의 식민통치를 벗어나자마자 20년 만에 다시 전쟁으로 휩싸인 폴란드, 그리고 독일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2차 대전 중에 일으킨 민중 봉기라 할 수 있는 바르샤바 봉기. 바르샤바 봉기는 식민지 상태였던 1919년 우리나라의 3·1운동에 비견할 수 있을까? 협공을 하던 소련군의 잔인한 계산으로 수세에 몰리고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 50만 명의 죽음에 수많은 바르샤바의 눈물이 있었다.

유대인 학살지로 알려져 있는 아우슈비츠가 폴란드 자국민들에게는 역사 속 거룩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또 하나의 장엄한

현장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씨가 화창해서인지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든 행위가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듯 느껴졌다.

우리 일행은 모두 지쳐 보였다. 몸보다 마음이 고달팠다. 한두 시간 전에 제 1수용소 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 선택을 잘 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 얼굴 표정에는 마음 깊은 데서 끌어올린 많은 표정들이 교차되고 있었다.

커다란 몸체의 버스가 굼뜨듯 출렁이며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간다. 차가 완전히 아우슈비츠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을 그때 마이크를 통해 가볍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첫음절이 익숙하다. 이국땅에서 듣는 한국의 대중가요. 막간을 이용해 음악을 틀어 주시곤 하는 지도신부님이셨다. 아우슈비츠를 돌아 나오면서 듣는 '민들레 흠씨 되어'

답답하게 마음에 고여 있던 어떤 것들이 시원스럽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속도에 맞춰 날려가는 듯했다. 저마다의 마음이 툭툭 떨어져 민들레꽃이 되기라도 한 듯 온천지에 노란 민들레밭이었던 아우슈비츠의 공터 풀밭. 꽃으로 고여 우리의 죄를 아파하다가 마침내는 민들레 흠씨처럼 날려 내가 아프게 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참회로 가닿는 시간.

'강바람 타고 훨훨 네 곁으로 간다.'





2022년 5월 구역모임

##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 \*범위: 제35장 해설: 성체적 청원 기도

33장과 34장은 성체적인 기도의 동기와 범위에 대해 발전시켰다. 그 범위란 공동체가 성부께 “매일의 빵”을 청할 때, 성사를 거행할 때, 그리고 영성체할 때를 말한다. 성녀는 본 장의 제목에서 “영원하신 아버지께 부르짖음으로써”라고 언급하며 결론을 제시했다. 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하신 성부께 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당시 미사의 성찬 기도와 같다. “그러므로 지극히 지혜로우신 성부여/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거룩한 당신 교회를 위해 청합니다.”

#### 1. 성체 기도의 마지막 이유들

영성체 자체는 우리의 내면의 집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 가득 받아들일 것을 내포하는 내면화의 행위로서 모든 관상적 거둠 기도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통한 합일”이라는 내적 역동성을 더할 나위 없이 발전시킨다. 이는 성체 기도와 영성체가 지향하는 커다란 목적이기도 하다.

성녀는 앞서 ‘원의’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성체는 ‘사랑의 미끼’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의 불로 인도해 준다.” 우리가 “원의를 갖고” 성체에 다가가는 한 사랑의 열기는 솟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자신 안에 사랑으로 그분(그리스도)을 간직하려는” 원의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녀가 성체를 삶 안에서 연장하기 위해 그리고 성체를 통해 끊임없이 기

도하기 위해 고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기도와 성체의 ‘내면화’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영성체를 못하고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겠으면 신령성체를 하십시오. 그것은 여간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1절)

성녀는 거둠 기도와 마찬가지로 성체의 내면화 역시 “좋은 기초를 닦는 것으로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어 위대한 일을 하게 해 주실 것” (29,8)이라 말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항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 성녀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기도나 성체 신심이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감으로써 삶을 형성해 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반하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있도록” (2절) 우리를 훈련시켜야 한다.

#### 2. 데레사와 그룹의 사제적 기도. 왜 그런가?

우선, 모든 신자들은 자신이 받은 세례에 힘입어 사제적 권능을 덧입었다. 이로 인해 신자들은 예수님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실제적인 사제직을 소유하게 된다. 둘째, 모든 그리스도교적인 기도는 이 사제직을 구현하게 된다.

성녀는 주님을 향하는 가운데 “덕성스러운 그들 속에서 내 허물도 힘을 쓸 수 없도록” (1,2) 뭔가를 덧입고 지지받는 느낌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아! 그리스도안의 내 자매들이여, 이 기도를 주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완. 바 1,5). 결국 이는 관상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다.



성녀는 『완덕의 길』 내내 여러 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성부께 기도하곤 했다. 심지어 천상에 계신 성부를 통해 예수께 직접 기도를 드리곤 했다. 성녀의 기도 리듬은 이 지상의 교회를 그 출발점 또는 마지막 대상으로 갖는다. 즉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직무와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수행하는 하느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 등이 그러하다. 또한 그러한 성녀의 기도 리듬은 예수님의 현존을 내포한 실제적이면서도 신비스러운 형상으로 드러나는 성사인 성체를 그 목표이자 동기로 갖는다. 성녀는 세상이 일탈하고 교회가 비참하게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바로 거기에 교회와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를 향해 기도하도록 초대하는 성녀의 외침이 자리한다.

어떤 계기도 「주님의 기도」가 간직한 청원만큼 기도하는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현실화할 수는 없다.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아드님의 이러한 청을 어찌 받아들이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모든 축복을 아드님을 희생시켜서 받아야 하옵는지요?” (완.바 33,4). 바로 그 때문에 성녀는 다시 한 번 독자 수녀 그룹이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위해 성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초대하며 부르고 있다.

### 3. 성녀의 성체 청원 기도의 동기와 느낌 그리고 리듬의 변화

『완덕의 길』의 성체 기도는 35장의 3-5절에 있다. 다음은 이 기도를 살아 내기 위해 강조되어 드러나는 주요 사항들이다.

1) **기도 그룹의 소집.** 일종의 기도 초대 [즉 “기도합시다”]라고 할 수 있다. “아드님은 스스로를 변명하시는 법이 없으시니 누군가가 나서서 말씀드려야 할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님들이여, 무엄하나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3절).

2) **테레사는** 다음의 은총을 청하기 전에

기도 그룹 내에서 자신의 역사 그리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야 할 필요성을 잇을 수 없었다. “나의 하느님, 괴로우시도록 당신께 빌고 싶사옵니다… 어찌면 제가 당신께 죄를 지은 그 탓으로 이러한 불행들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

3) **독촉하는 동기들:** 그리스도, 교회, 세상 전체를 들 수 있다. “루터주의자들 사이에서 이 지극히 거룩한 성사가 계시는 곳에 엄청난 불경과 모독이 일어나고 교회가 해체되며 많은 사제들을 잃어버리고 성사들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3절). 테레사는 교회의 역사적인 삶에 내포된, 그리스도께서 모욕당하고 천대받는 헤아릴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을 거슬러 호소했다. “아름다움과 순수함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비슷한 일들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4절).

4) **기도의 위대한 수취인:** 성녀가 기도를 드리는 분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당신,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지존하신 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의 창조주.” 성녀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더불어 직접 아버지 하느님을 향한다.

5) **절대적인 가치의 봉헌:** 예수님은 성부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그분은 “우리가 수없이 희생 제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사됐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지극히 거룩한 이 빵”을 봉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분을 되돌려드립니다. 저희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아드님 때문에 그리하소서.” “그분을 통해서 당신 아드님의 공로로… 주님이시여, 이제는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소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외침은 모든 이들과 더불어 연대하게 해 준다. “나의 주님이시여, 파멸해 가는 저희를 구하소서.” \*



\* 회원의 글 \*

## 변화의 합일

김선진 (사도의 모후의 마리아)/ 남가주 성 요셉 공동체

가르멜인들은 수도자들이나 재속회원들이나 모두 한 가족으로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들은 창립자이신 예수님의 성녀 데레사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데레사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기도와 사도직을 실천하면서 하느님과 합일을 목표로 끊임없이 영적 여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인 하느님과의 합일이란 어떤 것일까 궁금해진다. 사부인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하느님과의 거룩한 합일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죽어서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느님으로 변화된 합일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변화된 하느님과의 합일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사부께서는 변화된 하느님과의 합일로 산다는 것은 전부인 하느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실천할 수 없는 열 가지 사항들을 펼쳐 놓으셨다. 나는 아무리 하느님의 전적인 수동적인 힘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토록 난감하고 실천이 불가능한 삶을 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갔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는 재속회원들이 일반적으로 6년 동안 가르멜 양성을 받고 수도회 장상과 공동체 구성원들 앞에서 하느님께 맹세를 하는 종신 서약을 하게 되어 있는 과정을 9

년이라는 세월을 인고로 견뎌냄으로써 종신 서약을 하게 되면서 변화된 하느님과의 합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영혼이 변화되어 하느님과의 합일의 경지를 누린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비천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게 하시어 아드님 예수님께서 육화하여 강생하셨다는 사실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수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죄 많고 비천한 인간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안겨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교리를 새삼 들먹이고 있는 이유는 이런 사실이 역사나 글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20여 년 동안 어쩔 수 없게 된 환경 속에서 오로지 갑작스럽게 말 못하고 사지를 움직일 수 없게 된 딸을 돌보게 되면서 자연스레 세상과는 등지고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이토록 심오한 교리를 체험으로 터득할 수 있었다. 딸아이가 육 학년 때 1박 2일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에 떨어지지 않는 열로 병원에 15일간 입원해 있다가 모든 의사들이 원인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코마 상태에 돌입해 거의 죽었었다. 그러다가 기적으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물론 완전한 치유로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을 지니지는 못하고 사지 마비로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말하는 기능을 잃었지만 말하는 알아듣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훌륭한 의료적 도움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한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존하면서 21년을 살면서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신앙심이 두텁지도 않았던 나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는 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그런 딸을 가진 엄마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한 순간에 중증 장애인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더군다나 더 힘들었던 것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사람들과는 달리 환자 자신이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본다면 그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져 비통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 비참한 고통의 세월을 하느님 안에서 너무 평화롭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에게 베푸신 크신 하느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고 성체조배를 하는 등 교회 전례력에 따라 살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재속 가르멜회로 인도되었다. 재속 가르멜회에 입회하고 양성을 받아 보니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졌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정상적인 시기를 거쳐 종신 서약을 받기에는 내가 부족했던지 나에게 세

번의 유보를 안겨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들었던 고통의 무게가 실렸던 그 시간들을 가르멜 삶의 여덟 가지 양식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 내게 함으로써 마침내 참된 행복을 안겨주었다.

작년 10월 대망의 종신 서약을 받으면서 공동체 앞에서 당당하게 하느님께 맹세를 함으로써 사도의 모후의 마리아라는 현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모님과 신부님들과 함께 예수님을 충실히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임무가 생겼다. 물론 일상의 생활은 종신 서약을 받기 전이나 다름이 없이 평신도로서 데레사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충실히 살고 있지만 조금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인간적인 성숙에만 전심을 다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보려고 발버둥 쳤다면 종신 서약을 받고 난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기 위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바쳤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인간사에서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삭혀 보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인정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면서 위로도 하면서 시간을 소비했던 시절과는 다르게 사부의 말씀처럼 나의 전부인 사랑하는 그분께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치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평온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금세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평온해지고 늘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자연경관이나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소중한 창조물로서 귀하게 여겨지고 다만 내가 할 일은 하느님을 닮은 최초의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애쓸 일만 남아있는 것이다.



매일 미사 때 성체 분배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애쓰고, 성체 분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신자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성작을 깨끗이 하면서 목구멍에 넘기는 과정에서 나의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아 모시기를 바라고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바로 변화된 하느님과의 합일로 가까이 다가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내가 세계 인구 79억 중에 3만 명도 안 되는 재속 가르멜회 회원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내 이웃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나와 똑같은 하느님의 소중한 사랑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쓰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손에 놓인 왕관처럼 예쁘고 화려하게 빛나는 나를 보고 싶다.

*“뭇 민족이 너의 정의를 보고 모든 제왕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주께서 몸소 지어 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이사 62. 2-3)\*

## 수도회 소식

### 상설 고해소 안내

+ 찬미 예수님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재속회원 여러분들의 영적 상담 및 고백 성사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 가르멜 수도회에서는 3월부터 상설 고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소 : 서울 관구 본부 및 영성 센터

일시 : 매월 첫째 및 셋째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3/1, 3/15, 4/5, 4/19, 5/3, 5/17, 6/7, 6/21, 7/5, 7/19,

8/2, 8/16, 9/6, 9/20, 10/4, 10/18, 11/1, 11/15, 12/6, 12/20)

\*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의 회원들을 위한 배려를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성시간

날짜	2022년 3월 26일
지도	김광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오후 2시 30분부터 개방).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 첫토요 신심미사

-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 허선형 마리 도미니코 수사 사제서품

지난 2월 11일 오후 2시 서울 가르멜 재속회관에서 서울대교구구장님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주례로 허선형 어린양의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님의 사제서품식이 있었습니다. 사비오 수사님이 사제로 서품될 수 있도록 그동안 영적·물적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재속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사비오 수사가 앞으로 좋은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청원자 남윤성 사도 요한 형제 군입대

지난 2월 7일, 1년간의 청원기를 마친 사도 요한 형제가 입대했습니다. 형제가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일시: 3월 10일 (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1) , 4월 8일(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2)
- 강사: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신청양식: 영성특강/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 가르멜 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 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 재속회 소식

###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최정숙 성모통고의 헬레나  
· 선종일: 2021. 8. 23(향년 86세)  
· 대구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김사야 예수성심의 마리아  
· 선종일: 2021. 10. 21(향년 77세)  
· 대구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강춘옥 성모성심의 로사  
· 선종일: 2022. 1. 7(향년 86세)  
· 대전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권기복 예수성심의 미카엘라  
· 선종일: 2022. 2. 6(향년 89세)  
· 대전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은경축

\* 부산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날짜 : 2021. 11. 16.

회원 : 박옥자 아기 예수의 데레사





허선형 어린양의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님의 사제서품식(서울 가르멜 재속회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17,24)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가르멜 수도회 후원회 : 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 : 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 : 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 [http:// www.camel.kr](http://www.camel.kr) / 유튜브 : 가르멜 수도회 영성센터/ 앱 :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미화 美化

**“언제나 전 ‘꾸밈’ 없이 행동해요.”**

-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

\* 데레사 성녀께서 임종하시기 석 달 전인 1897년 7월 13일에 병실에서 둘째 언니인 예수의 아녜스 수녀님이 성녀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왠지 풀이 죽어있는 것 같아 보여서, “넌 우릴 위해서 (일부러) 행복한 척하고 그렇게 재미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니?” 라고 말했을 때 성녀께서 하셨던 답변임.